



곡성문화원

# 곡성문화원 어린이신문 동지

엄마, 아빠와 함께 보는  
동지 어린이신문

2001년 겨울호

2001지역문학의 해

펴낸곳: 곡성문화원 / 펴낸이: 양병하 / 역은이: 조준원, 배숙영 / 주소: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76 - 4 / 전화: 061-362-0890 / 전송: 061-363-7300

## 곡성문화원으로 오십시오

곡성문화원과 함께 문화의 향기를 ....

삶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곡성문화원은 여러분께 건강한 문화생활을 가꾸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 전통과 현대 문화를 배우고 즐기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민족의 미의식을 느끼고  
자기만의 일차 정서적 양식을 채워 보십시오.

문화의 향기가 배어나는 삶,

그 삶의 여유를 곡성문화원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곡성문화원에서 하는 일

1. 지역의 고유문화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보급
3. 지역문화 행사 개최
4.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6. 지역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7. 기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2001년 주요행사

1. 문화행사 사업
  - 소설가 한승원선생 강연회
  - 제2회 효녀심청 유치부 미술경연대회
  - 제2회 효녀심청 전국 청소년예술공모전
  - 선진생활문화강연회
  - 곡성문화회관 이매역 선생 강연회
  - 광주MBC일씨구 학당 강행구 선생 강연회
2. 문화교실
  - 다도교실
  - 서예교실

3. 향토사료조사
  - 향토자료집 발간
  - 내고장 인물 및 유적지 안내도 설치 (3곳)
4. 전시·공연사업
  - 기성여성합창단 합창공연
  - 문화원 자민회 녹차시음회
  - 국립국악원 국악대공연
  - 전통민속공연-극단 "굴림"
5. 기타사업
  - 문화유적지 순례
  - 제2회 효녀심청 전국 청소년 예술공모전 수상 작품집 발간

### 곡성문화원 기원현황

- 소재지: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구 776-4
- 설립일: 1969년 3월 22일
- 원 장: 양병하
- 부원장: 김종
- 사무국장: 조준원
- 간사: 배숙영
- 인원: 17명
- 교원: 8명
- 회원: 134명
- 문화가족: 33명

곡성문화원 T.061-362-0890 FAX.061-363-7300

### ◆ 곡성의 역사 인물 (2)

#### 항일독립지사 노임수 의사

노 임 수 1876. 5. 24 ~ 1911. 3. 2

노임수는 전남 곡성(谷城)출신으로 의병활동 중에는 인선(仁先)이라는 이름을 썼다.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이 강제로 체결되자 유원중(柳源中)·조규하(趙圭夏)등과 함께 의병 수백명을 모집하여 석곡면(石谷面)과 삼산(三山)에서 적과 교전하여 적 7명을 사살하였다.

1907년 노임수는 대체로 김동신(金東臣) 의진에 소속되어 활약하였다. 본래 김동신은 1906년 민중시(閔宗植)과 더불어 거의할 것을 약속한 바 있었으나 민중시 의진이 먼저 홍주(洪州)에 입성하여 크게 깨진 후 서로 연락이 두절되었으므로 독자적 의진을 형성하여 의병장이 되었다.

김동신 의진은 주로 전북 무주군 덕유산(德裕山)과 정음 내장산(內藏山) 그리고 구례 지리산(智異山) 등의 산악지대를 등지고 활약하고 있었다.

특히 1907년 9월 이후에는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약하여 적군을 크게 교란시켰을 뿐 아니라 고광순(高光詢) 의진과 합진하기도 하였다. 그즈음 노임수 역시 순천과 구례 등지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그러한 인연으로 김동신과 잠시 합진하여 그 지휘를 받아서 곡성군과 남원군 일대에서 전투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김동신이 오랜 전투생활 중에 특별하여 의병활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노임수는 1908년 4월(음 3월) 김동신 의진에 소속되었던 의병 중 뜻이 맞는 28명과 합세하여 새로운 의진을 형성하고 의병장이 되었다.

김동신은 6월에 신병 치료중 체포되고 말았다. 그러나 의진에 소속된 의병중 노임수를 비롯하여 유중환(俞鍾煥)·문태익(文泰翼)·최정근(崔正根)·성문길(成文吉)·차은표(車恩表)·오대근(吳大根)·국인목(國仁默)·임병주(林秉柱) 등이 독자적으로 의병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노임수는 처음에 총 21정을 휴대하였을 뿐이었으나 곡성·구례·낙안(樂安) 등지에서 적과 교전하는 등의 활약을 통하여 왜적 수십 명을 사살하였다. 4월 16일에는 신정백 의진의 20명과 합진하여 곡성군 죽곡면 상계리(竹谷面 榑梁里)에서 육군 수비대 및 일경과 교전하였으나 크게 패하여 의병이 문신(文愷)이라는 피해를 입었다.

1908년 11년 24일 끝내 적에게 체포되어 1909년 1월 교수형(絞首刑)을 선고받고 형장에서 순국하고 말았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77년에 건국훈장 국민장(國民章)을 추서하였다.



문 / 화 / 인 / 물

### 송만갑

#### 송만갑(宋萬甲)

- 1866 ~ 1939
- 조선말 판소리 명창
- 독자적인 창법으로 판소리 예술의 신境地(新境地)를 개척
- 조선성악연구회를 설립하여 판소리와 창극 발전에 기여

문화관광부

# 곡성문화원 주최 제2회 효녀심청 전국 청소년 예술공모전 결과

## 집행·심사위원 및 출품현황

### 공모접수·심사 기간

접수/ 2001. 9. 26 ~ 10. 26

심사/ 2001. 11. 1 ~ 7

### 집행위원

위원장/ 양병하(곡성문화원장)

부위원장/ 김 중(곡성문화원 부원장)

위 원/ 조준원(곡성문화원 사무국장)

진 행/ 배숙영(곡성문화원 간사)

### 심사위원

#### ■ 글짓기부문

##### 이순원

- 한국일보 신춘문예 심사위원
-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 한문숙 문학상, 효석 문학상 수상
- 「입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1 II」, 「은비령」, 「말을 찾아서」 「그대 정동진에 가면」 「모퉁」 「아버지의 잠」 등 다수

##### 이재백

- 곡성문화회 회장
- 서라벌예대 문창과, 월간문학 등단, 「어두운 터널」 등 다수

#### ■ 그림부문

##### 박지택

- 한국현대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 부산광역시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광주광역시 조형물 심사위원
- 광주예술대학교 교수 역임 및 동신대학교 예술학부 겸임교수

##### 조장규

- 광주비엔날레 디자이너
- 송원대학 산업디자인계열 겸임교수 역임 및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출강

#### ■ 서예부문

##### 조용민

- 대한민국 서예대전 심사위원·운영위원 역임
- 대한민국 현대서예대전 심사위원·운영위원 역임
- 전라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동 심사위원·운영위원 역임
-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 동 심사위원·운영위원 역임
- 무등미술대전 초대작가 동 심사위원·운영위원 역임
- 경기도 서예대전 심사위원 역임
- 전라남도 서예대전 심사위원 역임
- 충청북도 서예대전 심사위원 역임
- 경상남도 서예대전 심사위원 역임
- 광주·전남 서예대전 심사위원 역임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서예대전 심사위원 역임
- 대구광역시 서예대전 심사위원 역임
- 인천광역시 서예대전 심사위원 역임
- 전국서도민전 심사위원 역임

##### 이준형

- 전국무등미술대전 추천작가
- 대한민국서예대전 특선, 입선
- 동아미술대전 입선
- 대한민국현대서예문화대전 특선, 입선

## 글짓기부문 심사총평

벌써 두살배기가 된 때문인가, 의외로 많은 작품들이 응모되었다. 그것도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현상이었다. 소재의 다양성은 물론 수준 높은 작품들의 색도로 심사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미리 밝혀둔다.

### 초등부 393편

“코스모스”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기조차 힘든 저학년의 작품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다. 배냇짓하는 귀여운 갓난아이의 모습이 연상됨은 웬일일까? 티끌이 뭉치지도 모르는 맑은 눈으로 바라보는 풍경이 한 폭의 수채화로 변화된 느낌이다.

“500원 동전속의 학”이 보여주는 예리한 시선은 너무나 어른스러웠다. 흔하게 쓰는 500원 동전 감옥 속에 간혀있다.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소망은 이를 수 없다. 그렇지만 도약하고 싶어 몸부림치겠다. 군더더기가 없는 간결한 문체, 내면의 세계까지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솜씨, 어떤 사물을 접하면서 느껴오는 이미지를 통하여 메시지를 찾아 내는 힘이 너무 좋다.

사물을 대할 때의 착상이란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는 작품 “나뭇잎이 하나” 앞의 작품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호기심 같은 발동을 들추어내어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많은 고뇌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시의 호소는 감동에 있다는 것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신이 거주하는 관광지 흉도의 모습을 과장 없이 담담하게 묘사한 “홍도” “편진 천재 나무” “쭉 뻗은 그림자” “우리 할머니” 등 이 위의 작품들과 우열을 쉽게 가릴 수는 없었지만 동상 및 장려상으로 밀리지 않을 수 없음을 애석한 일이 아닐수 없다.

### 중고등부 196편

#### - 소설

한편의 중편소설, 세편의 단편소설, 우선 분량 면에서 읽는 이들을 긴장시켰다. 원고 300매가 넘는 “물망초”는 소설미학이 추구하는 격과 질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한채 장황한 이야기의 전개로 끝난게 못내 아쉽다. 많은 분량을 소화시켰다는 자체에 대해 위안만을 삼으려는 것은 금물일 것이다. 습작기간이 짧은 학생으로서 무리한 도전이 아닐까. 매끄러운 문장력 등은 호감이 가지만 소설이란 영역에 존재했을 때의 이야기다. 나머지의 작품들도 거의가 다 이러한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논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시키기로 했다.

#### - 산문

문학 작품이란 일상적인 이야기로서는 안된다. 물론 살아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독자에게 새로운 느낌과 감동을 동시에 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미소” “느티나무가 있는 길”과 “하늘이 내려준 선물” “그녀가 뛰어놓은 강” 등 산문은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진솔하게 서술하고 있다. 조금의 과장도 없이 삶의 과정을 그린 서정성은 좋았다. 삶의 반성과 거기에 파생되는 사색의 의미, 그러나 전자의 작품들이 같은 수준인 반면 후자의 작품들은 그렇지 못한채 흐름이 지적된다. “나만의 단풍나무 할아버지” “나의 도시락” “라디오” “신선의 그림자를

밟으며” 등도 끝까지 버리기 어려운 작품들이었다. “바다가 쓸고 간것은” “비의 상념” “벽” “어머니” “신명” 이들의 작품도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간결한 표현이나 절제된 언어의 구사력이 탁월한 “염-한 여인의 노래”를 선택한다. <심사위원/ 이순원, 이재백>

## 글짓기부문 당선작(중·고등부)

### ■ 느티나무가 있는 길 / 중·고등부 대상

김해 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이수진

티끌 하나 없는 푸른 하늘이 덜컹덜컹 소리와 함께 지구만 흔들린다. 털털거리는 오래된 버스가 진한 흙 냄새를 풍기며 좁은 길을 신나게 달린다. 흐드러지게 휘어지는 나뭇가지가 차창 밖에서 파란 하늘과 함께 어울리지는 이곳은 아버지의 어린기억이 있다. 아버지의 고향이다. 아버지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진 것은 이때부터였고 그 눈에는 애잔한 서글픔이 서려 있었다. 오랜 침묵 속에서 버스 밖의 풍경은 이미 낯익은 모습이 되었고 본능적으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가시는 아버지를 따라나도 일어섰다.

우리를 내려놓은 낡은 버스는 한결 가벼운 모습으로 흩먼지 가득 내뿜고 사라졌다. 애똥한 눈빛으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신 후에야 비로소 조용한 미소를 띄우신다. “여기다.”

낯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한 슬픔이 묻어 있었고 발걸음을 옮기시던 아버지께서는 또 다시 입을 굳게 다무셨다. 한적한 시골길, 산과 눈 밖에 보이지 않는 길. 이런 곳에서 아버지는 무슨 추억들을 가지고 계실까.

“얼마나 변했을까.”

휘어질 길 끝을 바라보시며 아버지께서는 또 다시 속삭이신다. 치친 아버지의 모습, 오늘은 왜 이따지 작아 보인단 말인가. 작아 보이는 아버지의 어깨가 나의 눈을 힘껏 잡았다. 단조로운 흙길, 지루한 풍경. 10분을 채 걷지 않았는데도 난 이미 지쳐 있었지만 아버지는 아니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땀 때마다 더 깊숙이 아련한 추억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 했다. “아!”

작은 철문을 밀며 아버지께서는 탄성을 지르셨다. 예전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는 작은 건물과 그네, 철봉, 하얀 운동장, 까르르 소리를 지르며 굴러다니는 낙엽들. 30년전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며 반가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환희에 자오른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어색함을 느꼈다. 내가 다녔던 학교들의 모습과 이 초라한 모습들이 비교가 되었다. 크고 잘 정리된 건물과 교정, 늘 환한 웃음소리 아버지의 고향에 대한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런 나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버지께서는 운동장 한 구석으로 향하셨다. 하늘을 찌를 한 큰 나무도 아니었다. 멋진 나뭇가지가 펼쳐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오랜 기쁨이 묻어 있는 나무, 긴 세월의 연륜이 있을 것 같은 나무였다. 이 작고 넓은 학교와 너무도 잘 어울리는, 아마도 그 시작과 운명을 모두 함께 했을 법한 나무였다.

아버지께서는 그 나무에 가만히 손을 얹으셨다.

“아.. 아버지...”

완고하시고 늘 엄격하셨던 아버지께서 그 나무를 잡고 눈물을 흘리셨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 고향을 떠난 지 30년이 넘었다는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사는 것이 바빠서, 옛 기억과 마주치기 두려워서 오지 못했다는 아버지. 한참을 나무를 안고 계셨던 아버지께서 마침내 나를 향해 오셨다. 곁으로 오신 아버지께서는 진한 나무 냄새가 났다.

“여기는 아버지가 다니던 학교야. 외진 동네에서 유일한 교육 기관이었지. 참 많은 일들이 여기서 일어났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나무 타기를 너무 무서워했단다. 하지만 운동회날 보물찾기는 늘 저 느티나무 나뭇가지에 숨겨져 있었지. 그때마다 너희 할아버지는 말없이 날 어깨위에 올려 주셨어. 커다란 어깨에 무릎을 타고 난 언제나 당당히 그 보물을 손에 쥘 수 있었단다.”

순수한 추억이 한껏 묻어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올려다본 느티나무에는 어린 시절 작은 모습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어깨에 올라탄 모습이 흐린 영상처럼 비쳤다.

“내가 4학년올 채 못 마친 그해 가을이었어. 그래 꼭 이맘때였다. 갑작스레 쓰러진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더 큰 도시로 나가야 했지. 가지고 있던 눈발을 모두 팔아 아버지의 병원비로 돌렸지만 결국 여길 떠난 지 1년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우리에게는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지. 아버지께서 내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 어디에서든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이 되는 느티나무를 닮으라 하셨어. 그 모습을 잃지 말라고.”

아버지께서는 내 손을 꼬옥 잡으시며 일어나셨다. “느티나무는 유난히 그늘이 넓단다 그래서 옛날에 정자 옆에는 항상 느티나무를 심었지. 할아버지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셨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 가족들에게 그들이 되긴 커녕 권위적인 모습으로 가족들을 대했지. 돈만 벌여다 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 미안하다.” 그 동안 나는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피해 다니고,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 아버지를 원망했었다. 5일마다 열리는 시장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을 파시는 아버지, 난 그런 모습의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길가에서 마주치는 것을 꺼려했다. 하지만 내 손을 잡은 아버지의 두터운 손에 깊은 상처가 내 맘을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소금물에 그 손을 담근 횡수만큼 부어오르고 틀어진 아버지의 손, 나는 다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다. 검게 그을린 피부에 깊은 고랑으로 남아 있는 주름. 어느새 아버지는 이 작은 초등학교처럼 초라해져 있었다.

“아니예요. 저는 알아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가족들을 사랑하시는지. 매서운 추위속에서도 그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아버지가 버티며 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는 이유는 바로 가족들 때문이랑거. 날카로운 칼에 베이고 거친 상자 가사에 찢려도 묵묵히 그 아픔을 참아 내신 것은 바로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랑거. 이제 저도 느끼는 걸요.”

그 동안 참으로 말하고 싶었다. 수고하시는 아버

지의 모습이 느껴질때마다. 늦은밤 안방을 비집고 들려오는 아버지의 신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리하지 못했다. 어색함에 제대로 하지 못한 표현들 나는 아버지의 어깨에 가만히 기대어 봤다. 나의 길고 험한 인생 길에 늘 있어 주실 아버지. 힘겹고 지친 나의 머리 위에서 강렬히 비추는 저 태양을 가리워줄 아버지. 그 분은 이미 느티나무를 닮아 있었다.

“난 아버지를 추억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힘들어진 삶이 모두 무책임한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했어. 아니 그리웠는지도 모르겠다. 너무 그리워서 기억할 수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

느티나무 앞에서 멈춰선 아버지는 다시 가만히 나무 위에 손을 떼어 보셨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를 따라 했다. 땅속 깊숙이 뻗은 느티나무가 힘차게 물을 빨아들이는 그 힘은 마치 심장이 펌프질하는 것 같았다. 붉어진 낙엽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 나도 이처럼 넓은 그늘을 드리우리라. 이제 나의 아버지의 머리 위에, 나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서 내가 큰 그늘이 되리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풍경은 종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를 반기었다. 사랑스런 눈빛으로 나를 반기는 아버지와 맑은 하늘, 그리고 흐드러지게 훑날리는 느티나무의 낙엽이 내 길에 찬란히 뿌려지고 있었다.

#### ■ 한 여인의 노래 / 중 · 고등부 금상 춘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1반 윤지은

동구 밖의 낮은 토담집 마당엔

폭폭

아직 물이 덜 든 면포가

맘을 내고 있다.

치자와 쪽빛물이

여인의 앞치마를 타고 돈다

서방님을 기다리던 붉은 연지는

번져

잇꽃으로 우러나오고,

시부모님 봉양하던 흙물은 호미는

부러져

정향나무 내음을 풍겼다.

여인의 무명천은

곱기로 소문이 났다.

찌고 말리기를

아흐레

울고 흐느끼기를

아흐레

천연의 빛깔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여인의 삶’이라는 염료가

그 속에

녹아 있었다.

#### ■ 하늘이 내려준 선물 / 중 · 고등부 은상 김해 중앙여자고등학교 2학년 3반 김향남

항상 곁에 있지만 나는 피해야 했다. 아직 인정

할 수 없기에,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2년전 우리는 시대로 이사를 왔다.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 엄마와 언니랑 함께 살기에는 좋은 집이었다. 큰방은 언니랑 내가 쓰고 작은 방은 엄마가 쓰고... 우리는 그렇게 작은 꿈을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 갔다. 그러던 어느날... 검은 가죽 잠바를 입고 큰 옷상자를 든 어떤 남자가 우리집 현관문을 들어서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다음 아닌 엄마의 애인이었다. 나는 황당스러움과 웃음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내가 6학년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다. 언니와 나는 엄마를 따라 나왔고 그 당시 엄마에게는 아저씨가 계셨다. 하지만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새집에서 새로운 사람과 부딪치면서 살아갔다. 여자들끼리 살다가 남자 한명이 들어오니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화장실도 옷차림도 밥먹을 때도 모든 것이 신경쓰이고 기분이 나빴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 역시도 좋았다. 난 예전에 항상 엄마랑 같이 잤는데 이제 엄마는 아저씨랑 같이 주무신다. 맨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싫었다. 엄마를 꼭 빼앗긴거 같았다. 그렇게 아저씨랑 지난 시간 3년이 지났다. 술먹고 돈벌어 오라는 예전의 아버지는 다른 매우 자상한 분이신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엄마는 얼마전에 아저씨랑 결혼을 하셨다. 난 엄마의 결혼식 날 가지 않았다. 엄마의 모습을 볼 자신이 없어서... 구석진 방에서 혼자 하루종일 울었다. 엄마는 여행도 가지지 않은채 내가 걱정이 되겠는지 집으로 오셨다. 밖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어 보니 엄마였다. 눈이 퉁퉁 부어서 엄마의 모습이 조 흐릿하게 보였다. 엄마는 나를 보고 웃었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왜 바보같이 우니” 엄마 멀리 도망가는 것도 아녜네 항상 니 곁에 있을 텐데.”

나는 한참을 안겨 울었다.

그리고 얼마후 아저씨를 찾는 전화가 왔다.

“거기 문자장님 맞습니까?”

“예, 맞는데 지금 안계시는데요.”

“지금 전화받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순간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될지 생각나지 않았다.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난 망설이다가

“말린데요.”

“예, 그럼 제가 다시 전화 걸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피식 웃음이 나왔다. 말... 아마도 시간의 약속이 아닐까 싶다. 시간이 지나고 같이 부들켜 산 시간이 내 마음의 족쇄를 열어서 새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요즘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새아버지 모습을 보고 아빠라고 마음은 외치지만 그 말이 쉽사리 나오지는 않는다. 3살짜리 꼬마가 말은 못하고 입에서 뱀도는 것 처럼... 이제 내 자신을 다급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새아버지를 인정하듯 아빠소리로 세월에 맡겨보려 한다.

언젠가는 내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새아버지를 생각하면서...

#### ■ 신산(神山)의 그림자를 밟으며 / 중 · 고등부 은상 서울 풍문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지수

동강에서의 래프팅은 정말 기대 이상의 경험이었다.

아름다운 주변의 경치도 좋았지만 그곳이 수물될 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가슴을 저리게 하였다. 구비구비 억겁의 세월을 조각하며 견뎌온 강 주위의 경치는 어디 꽃이야만 자리 값을 한달 수야 있을까마는 이름 모를 무수한 꽃은 꽃대로, 골골마다 나무는 나무대로 이런 저런 풀들 보듬고 그 틈새마다 제각각 몸집 맞게 햇살이며 바람, 삶과 행복을 나누어 주며 동강은 그 깊은 오지랄 언저리에 또 풀이 그늘만큼의 별레며 짐승들을 길러 왔을 것이니 그 목숨의 자리를 이제 흔적조차 지운다는 데는 비감(悲感)을 떨칠 수 없는 일이다. 슬프도록 이롭고 고운 아라연이 한낱 전설 한 토막으로 수장되는 현실을 손끝맺고 바라만 봐야 할 것인지... 마음 가벼운 인간들의 찌꺼기 감상을 아는지 모르는지 담그는 발이면 발, 타고 내리는 보트면 보트, 어느 것 하나 거스름 없이 어머니의 손길로 반겨주는 그리하여 오히려 무심한 그 깊은 속내를 감싸는 것인지! 자비와 은혜는 그만 두라고도 삼신 할아버지의, 하나님, 부처님의 무극(無極)의 경지를 여기에서 뵈는 듯하여 가슴에는 잠시나마 뜻 모를 감각이 스민다. 하기사 인간의 미력으로 막으면 무엇을 어느 세월까지 막을 것이며, 가두면 무엇을 어느 골까지 가둘 수 있을 것인가.

고작 기백년 아이들 장난 같은 물놀이 끝나면 다시금 그 절벽 요요한 자리에 홀로 피어 있는 나리꽃, 그리고 바위처럼 고고히 튼튼히 버티고 서 있는 작은 소나무, 투박하나마 아름다운 전설을 등에 업고 다시 무량수의 흐름 침묵할 두껍 바위, 아니 이름을 달지 못했다면 어쩌랴. 이 골짜기 흐름 침묵할 두껍 바위, 아니 이름을 달지 못했다면 어쩌랴. 이 골짜기 저 강가의 무심한 자갈 하나까지 결코 적지 않은 세월들 무심히 삭이고 그 자리에 청청하게 서 있는 그 영혼들은 잠시 잊었던 물길 따라 빛나는 물결 어루만지며 햇살 양념하여 다시금 세월을 저어 가겠지. 다만 속인의 성급한 분노와 절망과 값싼 한숨으로는 저 강물위에 노니는 원앙 한 쌍이 오래오래 동강 그 자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인지가 염려될 뿐이다. 세 시간의 자애로운 품을 벗어나는 끝날 입시에 굵은 비가 내린다. 억겁의 세월에 실린 이야기들 가슴 풀이 다 나누지 못하고 작별하려는 무거운 마음을 가만히 헤아리는 듯하다.

잠시의 비줄기에 들끓던 흰화(喧嘩)가 다 가라앉고 그 수악한 더위까지도 다 어디로 가버린다. 바람바람 구비를 돌아 내려 다시금 진속에 발을 내디는데 그 강물에 마음 때, 몸의 때 죄다 털고 그러고도 무엇을 얼마나 털어내야 한다는 것인지 한참을 두고 비가 내린다.

두타산 등반은 첫들머리부터 고행 그 자체였다. 숨을 뿡아만 가는 경사에 바닥까지 드러난 호흡대 위태로운데 그 가파른 비탈을 오르는 급급한 박동에 맞춰 물아대는 건너산 관음암의 무심하면서도 빠른 목탁소리, 다리는 나무도막처럼 다져져 옮겨 딛기도 어려운데 길목 곳곳마다 좁은 나무 틈새를 두어 속세의 영육의 때를 거부하는 완고한 외경. 그러면서도 틈틈히 전신을 쥐어짜는 고행의 손길 잠시 거두고 앞섰을 풀여 연결되어 깊은 속살 그저 무연히 드러내 주는 인자한 모정(母情), 무슨 고주물러 빛이 놓는 듯이 부드러운 바위 살은 차라리 유감적이었고, 그 살 자리에 발을 묻고 노건주나무들, 바위가 부서지면 부서지고 세월이 무너지면 무너

지라는 듯 유치환의 '바위' 위에 서로 세운 이육사의 '교목(喬木)'을 보며 느끼는 한 줌 바람만도 못한 내 영혼의 가벼움이어!

그 눈물어린 감동 한 가닥으로 잠시나마 속진(俗塵) 조금 빗겨 내고 이육과 산줄기를 다시 타고 오르다 보니 길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가 확연한 수종(樹種)차별, 그것은 왕후장상(王侯將相)이 씨가 있다는 단호한 외침이었다. 길의 왼쪽 급한 비탈에는 온통이 참나무요, 오른쪽 조금 덜 급한 비탈에는 소나무 천국이니, 조화옹(造化翁)은 그 높은 바람 맞이에 무슨 인연으로 무슨 심사로 소나무 천지를 연 것일까.

혹 하늘의 이상을 지상에 실현하려는 그리하여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속국을 따로 이 깊은 골에 만들어 쟁기려는 헛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까? 더구나 그 왕국만으로는 모자라서 어느 낮은 나라 흔기 찬 공주를 데려와 이 험한 상상봉에 묶어 두고 있는 것일까? 그 충중(叢中)에 수정(樹中)공주는 역시 붉은 소나무였으니 수줍어 꼭 모이고 돌아설 듯 살짝 외로 거둔 두 다리는 밝은 빛 투명한 살결이 어찌 그리도 예뻐하던가. 요상하게도 가슴 미어져 차마 오래 훑쳐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두고 두고 눈길을 무겁게 한다. 요즘 젊은 아가씨들의 다리가 비록 늘씬하기로서니 내놓고 보라는 다리이니 신비함이 적고 단장한 살결이 아무리 매혹적이라 해도 인공이 가미된 것이니 상급한 맛을 찾기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 적송(赤松)의 매끈하고도 혈색 고운 몸매는 보는 이의 가슴을 오히려 조인다. 아른아른하여 비칠 듯 말 듯 한 얇은 살결을 담배씨만치 훑쳐보고는 가슴 내려앉은 아찔함으로 끝내 길을 더듬거릴 밖에. 잠시 숨을 돌려야 다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몽금함이다. 미인의 매력을 경망한 분방보다 조백 결월인 수줍음에서 더욱 얻는 것이 남자의 인지상정이라면 단정한 눈썹 살포시 들어 삼상(颯爽)한 송귀 한 자락 풀어내는 가락한 품행에 그 누가 삼십 년 굳은 직심(直心)인들 고집할 수 있으랴. 그리고 보면 누가 조물주라 해도 이 터전, 이 명당에 이만큼 나라를 열고 이만한 미인을 데려다 묶어서라도 세우지 않을 수 없겠다 싶다.

그 험한 길 어느 언저리에 대궐 터가 있다는 말도 있더니 따로 대궐이 있다기보다는 이 적송(赤松)의 군락이야말로 제왕에서 구품 벼슬까지 죄다 자리 차고앉은 살아 있는 조정(朝廷)이 아니고 무엇이랴. 아니 만 백성까지 요지 가지로 거느린 하나의 송국(松國)이라 한들 누가 시비할 말을 찾으랴!

왼쪽 천 길 비탈에는 무수한 참나무 병정들로 겹겹 호위를 세우고 오르는 능선에는 몇 마리 독사(毒蛇)로 수문장을 앉히고 그러고도 곳곳에 검색대를 세워 살집 있고 속세의 때 많은 자를 쏘는 위엄에 누가 두타산 부처님 머리에 발길 감히 올려 볼 마음이나 먹으랴!

범접 못할 신비가 부처님 자비의 거리는 아니로 되 어룡거나 귀천 없이 속인들 발길 닿는 대로 오르는 것을 막자는 깊은 헤아림이나 아닐는지. 참나무 병정을 윈 권으로 호령하고 목숨을 건 강직한 독사 수문장의 영정까지 잘 받고 수 차례 검색대까지 용케 거쳐 지나갔지만 어설피게 닦고 조인 내 인생의 명세(明細)로는 아직 부처님의 손바닥에 올라설 업(業)도 비치 못한 듯하여 한참을 식식거리

다가 중도에 돌아서는 발길의 무게를 헤아리자니 심사는 모래알 같으나 그것도 다 내가 지은 분수가 거니 하는 자그마한 깨우침은 가벼워진 물병만큼이나 여유롭다. 하늘을 다 못보고 겸허히 내리는 길에 골골이 베풀어주는 억겁의 은혜로 담을 거두는 맑은 물 몇 모금은 신선이 즐겨 취한다는 유하주(流霞酒)의 풍치일 듯한데 감히 신선을 운위할 염도 못할 일이나 따에 전 어지러운 머리에서 고작 떠오르나니 그 어설피른 날말 몇 날. 언제 다시 알현할지 기약 없이 감감한 일이라 송왕(松王)께 하직을 고하고 다시 모습을 찾지 어려운 공주에게도 못내 아쉬운 무언의 인사를 남긴다. 산 아래 세상의 어지러운 소문 다 잊으시고 청청(靑靑)한 위엄과 도도(澹澹)한 자존으로 천세 만세 왕업을 이어 가 시우소서.

임금님, 공주님, 억겁 세월의 무수한 본진으로 흘러지고 떠돌다가 어느 인연의 작은 골목에 스쳐 가는 바람오로나마 잠시 어울리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삼생(三生)의 아름다운 연분인 줄로만 여기소서. 무섭기로는 무슨 땅벌같이 엄하면서도 땀흘리는 자식에게 한없이 자애로운 한석봉의 어머니를 이 깊은 두타산에서 다시 뵈는 기쁨에 삼십몇 도 여름도 그저 감음할 뿐이었다. 무명계 맑은 반석 위에 젖은 남루를 풀어 내던지고 발 담그기도 황송한 육계에 참으로 부끄러운 육신 담그고 보니 우선 급한 대로 풀던 숨은 고르겠으나 속된 죄가 하도 큰 탓일까 열에 한 각(刻)도 참고 앉아 있지 못할 것네. 몇 번이나 물 속에 드날락거리며 점점 무릉(武陵)을 잊어가던 어부의 어눌한 잠 한 숨을 배우다가 어쩌다가 속세에 맞는 내 옷을 찾아 다시 심신을 주저앉힐 밖에. 가슴 물결한 자그마한 법염(法悅)의 산행이었다.

#### ■ 술전의 의미/ 중·고등부 동상 전남 영광고등학교 2학년 1반 김가나

몇 시쯤 됐을까...!  
중간고사 3일을 앞둔 날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꿈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즐기고 있었을 테지만 이번 주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는 세상 어디에도 이겨낼 장사가 없다는 그 무거운 눈꺼풀과의 씨름에서 승리해야 한다. 피의 밤들이 2시 17... 18분을 가르킨다. 유행가의 가사처럼 하얗게 밤을 지새운 어제의 후유증일까?

오늘은 정말이지 천근만근으로 몰려드는 잠을 물리칠 수가 없다.

언제나처럼 썩상 서랍에서 일회용 커피 두 봉지를 꺼내 컵 속에 털어 넣고 부엌으로 향했다. 집 구조상 부엌엔 가려면 안방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식구들이 깨지 않게 발걸음을 조심조심... 도둑고양이 생선 출제 먹는 양 안방문을 열었다.

방문을 열자마자 전축의 디지털 시계가 번쩍번쩍 빛을 내며 2:30분을 알렸다.

'어? 부엌에 누가 있나?' 부엌에 불이 켜 있었다. 아까 달그락 찻시 부딪히는 소리가 났었는데...

부엌문을 기웃이 열었다.

가을은 가을인가 보다. 고요한 10월의 가을밤. 행~하니 부엌 안에도 냉기가 돈다.

그런데 그 냉기를 맞으며 소주병을 기우시는 사람...  
엄마였다.  
공음인가? 전라북도에 있다는데.. 처음 듣는 낯선 지역이었다.

엄마는 공음의 어느 마을에 자리잡은 농장에서 아주머니 몇 분과 하루 일당 3만원을 받고 일을 하신다. 벌써 넉 달 가까이 새벽 5시 30분이면 차가운 이슬을 맞으며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그 농장에서 보내주는 봉고차에 몸을 싣는 엄마였다.

늦은 시각 집에 도착해서는 밥 한술 뜯 기운이 없어 이불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잠을 청하시는 엄만데...  
그런 모습이 안쓰러워 그 돈 없이도 산다며 농장일 때려치우라며 호통치는 우리아빠.

아빠의 마음 또한 내 마음과 같겠지? 아니 더 아프실 겁니다.

"집에 있으면 뭘해. 환풍기라도 벌어서 딸자식들 공부 가르치고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지..."  
이런 엄마의 말에 아빠는 말없이 한숨만 내쉬며 담배를 집어 무신다.

오늘도 9시 뉴스를 보고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내 방에 올 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세상 모르게 주무시고 계셨다.

그런데 이 야심한 밤, 엄마의 깊은 잠을 깨운 정체를 모를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엄마는 단숨에 마지막 술잔을 비우고 멍하니 서있는 나를 당신 앞에 앉히며 말씀하셨다.

"가나야, 아이고 우리 딸, 곧 시험이지? 열심히 해야지, 네 인생 네가 개척하는 거야. 엄마처럼 살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엄마 같은 인생은 얼른 죽어야지."

"엄마, 그런 소리 마세요, 엄마 열심히 할게, 오늘도 새벽같이 일 나가서 하루종일 허리한번 못 펴고 일 하셨을텐데.. 피곤하실테니 어서 가서 주무세요"

".....오늘 뚝속에서 엄마 어렸을 때를 봤단다. 유난히도 형제가 많아서 첫째인 엄마는 내 이모, 삼촌들을 돌보아야만 했지."

"....."  
"1년만 꼭 참고 열심히 해라 1년만 참으면 네 미래가 열리는 거야"

"알았어요, 엄마 나 열심히 할게.."

"엄마도 많이 배웠더라면 더 나은, 멋진 인생을 살고 있었을텐데..."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는 엄마, 당신의 눈을 진 얼굴을 딸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열린 창 밖으로 시선을 돌리신다.

작아져만가는 엄마의 모습에 코끝이 찡해져 나 또한 그런 내 모습을 보기가 싫어 열린 일어나 산티미처럼 쌓인 싱크대의 그릇을 집어들어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잡도 껌 걸 설거지나 좀 해야겠어요"

<쌩아~>

다행히 물소리가 큰 탓으로 내 울음소리는 문혀질 수 있었다.

물레 눈물을 흘리며 복잡하게 얽혀진 머리 속을 잠재우기 위해 마구마구 그릇을 닦는다.

"가나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도, 곧 3학년이잖나! 열심히 해라, 열심히.. 열심히 해야한다."

술에 취하셨는지 감정이 폭발쳐 슬픔에 취하셨는지

엄마는 언저루 '열심히 해라' 를 되풀이 하셨다.

못 배운게 한이시라던 당신의 꿈을 자식에게 대신 이루게 하려는 부모님의 희생 어린 바람!

농장에서 새벽같이 박스에 배를 포장하여 나르며 이리저리 치어 몸이 성한 곳 없이 땅이 들어도, 피로가 누적되어 온몸이 저리고 결려도 당신은 못한 이 자식들을 위해서 내일도 차에 몸을 실으시겠지요!

2년전.. 다라지가 난 것처럼 눈이 붓고 입가와 눈주위가 파닥파닥 뛰면서 풍기를 보이며 앉아 누웠던 엄마.

나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 받고 추운 겨울 세탁기 한 대가 없어 찬물에 손빨래며, 설거지, 집안 일을 도맡아 모두 해야만 했던 그 시절..

그때 몸이 다 망가져 40대 초반인 지금 조금만 쌀 쌀하고 바람이 불면 머리와 팔이 시리고 결려서 함부로 밖에도 못 나가신다.

한의원이가서 침도 맞고 보약도 지어먹으라고 등 떠밀어도 괜찮다며, 무슨 약이냐며 너희들 학비 내고 공부 가르칠려면 돈 아껴야지.. 엄마 하나도 안 아파하시며 당신 몸 챙기지 않은 분... 우리엄마!!!

언제 이리 시간이 지났는지 저 멀리서부터 성큼 성큼 햇살이 비취었다.

창 밖으로의 세상이 환히 빛난다.

'제가 한살 한살 나이를 먹은 만큼 당신의 얼굴에 깊게 패인 골의 수가 늘고 당신의 뒷모습 또한 작아만 지는 것 같습니다.

제 앞에서, 당신 자신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 약해지지 마세요.

지금 이 세상을 환히 비춰주는 햇살만큼이나 당신은 제게 빛나는 보석이며 희망과 꿈이십니다.

항상 엄마는 친척분들 앞에서 자랑하셨죠, 우리딸.. 어찌나 야무지고 똑똑한지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농협이며 우체국에 엄마 대신 심부름을 잘 다녔어...

그렇게 자식 칭찬을 하시며 웃고 계시는 당신 얼굴 뒤로 저는 보았습니다.  
한달에 한번 오는 청구서 용지며 학교에서 보내오는 학부형 말씀 용지앞에 어쩔 줄 몰라 고민하시다 힘겹게 말씀 하셨죠

"가나야, 엄마가 손이 아파서 글씨를 못 쓰셨구나. 인천 이모때에 10만원을 보내야 하는데.. 네가 좀 쓸래?"  
처음에 저는 정말 손이 아프셔서 제게 대신 작성하게 하시거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뭘 찾을까 있어서 문갑 여기저기를 뒤지고 있는데 검정 봉지에 돌돌 말아서서 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편지가 손에 잡혔습니다.  
뭘지? 하는 생각에 꺼내 펼쳐보니 편글씨 교재였습니다.

이런게 왜 여기에 있지? 궁금하네 훑어보니  
<ㄱ ㄴ ㄷ ㄹ... 가 나 다 라 마...>  
연필로 정성스레 한자한자 또박또박 당신의 소망이 팍 매워져 있었습니다.

못 배운게 한이 되어 남 앞에서 언제나 자신이 없었던 엄마.

하찮은 글씨 하나에도 예민해져 누가 당신 글씨를 보고 흉이라도 볼까봐 잠자는 우리들 머리맡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서 글씨 연습을 하시던 엄마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삐뚤삐뚤 비록 유창한 필체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크고 값진... 고귀한 것을 보았고 느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정성이 그리고 저에 대한 사랑이 더 아름답게 고스란히 담겨있었거든요.

7살, 허리춤에서 당신을 높게 올려다보던 그때 그 꼬마가 18살이 된 지금도... 아니 100살이 되어 백발 할머니가 되어도 변함없이 당신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했노라 자신 할겁니다.' 동터오는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당신의 숨소리에 힘이 납니다.

## ■ 나의 도시락/ 중·고등부 동상

여수 부영여자고등학교 2학년 6반 김세희

"반찬이 이게 뭐야..."

투덜투덜... 항상 나는 내 도시락 반찬에 화가 났었다. 내가 자고 있을 때 엄마는 뭘 하시길래 반찬이 이모양일까?

내색은 못하고 입만 삐죽 내밀어댔다. 오늘도 그 반찬이라고 생각하면 아침부터 괜히 화가 나고 신경질부리기 일쑤였다. 지금 생각하면 내 성격도 고약스러웠던 것 같다.

난 부모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과는 조금 다른 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노래방을 하시는 우리 부모님은 항상 잠 부족으로 허덕이셨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집에 오시면 청소도 다하고 주무셨으며 매일 겨우 5시간 정도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시곤 했다. 부모님은 날 위해 그러셨지만 어렸던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나는 점심밥을 먹기 위해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먹고 싶은 맘이 푹 떨어졌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미역줄기가 퀘퀴한 냄새를 내며 도시락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씩씩거리며 도시락을 그대로 쳐넣어 두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엄마에게 뜻하지 않게 화를 내버렸다. 엄마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럼.. 우리딸.. 뭘 먹고 싶어? 무슨반찬 해줄까?"

"땀 애들처럼 햄이랑 맛있는거 싸주란 말야.." 곧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내맘을 왜 몰라주는 거야 ~엄마는...

그날 저녁, 나는 엄마의 마음은 모른채 여느때와 달리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평소에는 새근새근 자고 있을법한 새벽녘에 나는 웬일인지 인기척에 깨어났다. 그리고, 무억 한켠에서 들리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향해 무거운 눈꺼풀을 치켜떴다. 그곳엔 사랑의 천사가 있었다. 엄마였다...

엄마는 충혈된 눈을 거듭뜨며 햄반찬을 만들고 계셨다. 나는 계속 물끄러미 지켜봤다. 반찬을 만들면서도 잠이 오는 것을 애써 삼키며... 달궈진 후라이팬에 손을 대어가면서까지 우리 엄마는 날 위해 보잘 것 없는 딸을 위해 도시락을 만드셨다. 난 울컥 쏟아지는 눈물을 머금고 들끓는 이불속에서 목메이게 울었다. 여느때와 다름없이 아침이 밝았다.

내가 학교갈 때 즈음이면 부모님은 한밤중이시다. 나는 자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었다. 아마 "사랑해요~"라는 이말 한마디가 그토록 하고 싶었을 것이다

깊은 잠속에서도 날 위해 반찬을 만들고 있을 우리 엄마... 그 새벽에 도시락을 꾸러 주시는 어머니 힘들고 쉬고 싶으셨을 텐데도 나의말 한마디에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은... 어머니"라는 말을 그제서야 조금 깨달을 수 있었다. 부모님께 힘이 되는 일은 참 많다. 조그만 말 한마디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듯이..

세상이 아무리 각박할지라도...

현재의 청소년들이 아무리 공경이란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부모님은 사소한것부터 가장 큰것까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신다.

어릴적 내 작은 도시락 속 사랑처럼...

### ■ 라디오/ 중·고등부 동상

김해 중앙여자고등학교 2학년 2반 노현주

"할아버지는 왜 라디오만 들어?"

"현주야 할아버지는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 이 라디오를 통해서 말이야."

아직 새벽의 설빛기운이 거리 곳곳에 주춤삼 깔려 있다.

부산행 버스 백삼십다시 일변, 백일장을 참가할 때마다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새벽의 수증기를 맞이하곤 한다. 버스는 속력을 내기 시작하고 창문틈으로 길고 슬릿한 빛이 걸여 들어오고 있었다. 귀가를 뻗는 라디오 소리...

DJ의 감미로운 음성에 배어 있는 사연의 속삭임은 나의 귓바퀴를 땀뿔아 달팽이관을 관통하고 가슴깊이 박힌다. 무릎 옆 좌석에 눈이 갔다. 머리위에 뿌연 서리가 내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다. 끊임없이 가슴에 박히는 라디오 소리, 지긋이 눈을 감고 있는 할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바쁘셨던 부모님은 젖도 때지 않은 나를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 맡기셨다. 어렵듯이 떠오르는 나의 어린 시절은 언제나 할아버지의 품을 떠날줄 몰랐다.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셨다. 선천성소아마비... 백명중에 한명꼴로 걸려다니는 그 흔치않은 병의 주인공이 왜 할아버지여야만 했는지, 아홉살이 되던 해에 할아버지는 두 다리를 잃고 시간이 지날수록 등이 굽었고 입술이 일그러졌고 모든 일에 하나 둘씩 의욕을 잃으셨다고 한다. 설상 가상으로 시력까지 잃게 되어 희미하게라도 세상을 볼 수 없게 되어 버리셨다. 하지만 언제 부터인가 하나의 희망의 서광이 할아버지 자신을 일깨워 주었고 칠순을 바라볼 때까지도 당신은 스스로를 부끄러워 하지 않은채 당당히 살아 가셨다. 어렸을 때에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무섭고 징그러웠다고 생각도 했었는데 언제나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로 옛날이야기를 하시던 모습은 수험생의 길을 앞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간직되고 있다. 1급장애인 중서가 집을 우송 되던날,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주고 사랑할 줄 아는 자식이 있고 돌이킬 없이 살아온 삶에 대한 자신이 있었으리라.

"할아버지 왜 라디오만 들어?"

어린 나는 말뚱말뚱 일변 어두워진 할아버지의 얼굴도 모른채 자꾸만 보냈다.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것... 그것 만큼 아픈 소외가

있을까?

아무것도 모른채 아물어가는 당신의 상처를 다시 다치게 했을 지도 모를 터인데 할아버지는 지긋이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현주야, 할아버지는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 세상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고 풍경이 있지. 난 그것을 라디오를 통해서 본다. 마음으로 말이야."

그때 나는 어리둥절 하기도 했다.

라디오로 본다?? 라디오는 듣는 물건이지 않던가?

하지만 이젠 그 말을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다.

한바탕 회상을 하고 나니 벌써 아침이었다. 여전히 버스는 달리고 있었다.

올해 추석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곁에 있었던 할아버지가 이젠 없다.

유난히도 매서운 겨울바람이 코끝을 스치던 작년 겨울,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아마도 할아버지는 세상이라는 곳의 경이로움,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를 마음 가득 담아 가셨으리라.

차례를 지내고 조용히 할아버지의 빈방을 둘러 보았다.

남아서 색이 바래고 안테나가 꺾여진 라디오 하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 대한 여백을 채워 주셨던 나의 할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잔심부름 따위를 하면서도 할아버지에게 짜증섞인 말투로 대했던, 세숫물을 받아오면서도 투덜댔던, 소변을 보기 힘들어 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던 그 시절이 지금이야 왜 이렇게 후회의 이름으로 나의 가슴을 때리는지... 후~ 먼지를 불어 낸다. 두 손으로 가득 안아 본다.

할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져 두 볼에 주욱 눈물선이 그인다.

'할아버지, 그 곳에는 라디오에서 보았던 세상을 비로소 두 다리로 걷고 두 눈으로 보며 느끼고 있었지요, 이 못난 손녀딸을 채 원망도 못하신채...'

### ■ 나만의 단풍나무 할아버지/ 중·고등부 동상

천안 광풍중학교 3학년 박소희

파스한 햇살이 비치고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드는 가을. 나는 올해도 어김없이 울긋불긋 물들어 가고 있는 단풍나무 아래서 나만의 단풍나무 할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파스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던 날, 나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단풍나무 그늘 아래 앉아계셨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친근함과 인자함이 묻어났습니다. 4학년 때 인연에서 이곳 천안으로 이사한 모든 것이 생소하게 느껴지던 그 때, 할아버지를 만난 건 나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 앞에 이사는 사람들이예요."

"아! 그래요? 꼬마 아가씨도 왔네?"

"안녕하세요?"

"그래, 잘 왔다. 앞으로도 자주 놀러 오려무나."

"네."

할아버지께서는 처음 보는 내게 내가 할아버지께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따뜻한 말로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엄마와 같이 간 그 이후에도 나

는 혼자서 학교를 끝마치고 오면은 항상 단풍나무 그늘 아래 앉아계시는 할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 소희 왔구나?"

나는 몇 시간을 할아버지 옆에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실재 없이 종알종알 말하기 바빴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귀찮은 내색 한번 안 하시고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일일이 대답해 주시면서 귀담아 들어주셨습니다. 또 할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 댁의 마당에 있는 꽃과 나무들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맛있는 과일을 수확하면 꼭 나에게 먼저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아주 작은 단풍나무를 보았습니다. 한번 손으로 꺾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 할 것 같은, 발로 자칫 잘못해서 밟으면 금세 죽어버릴 것 같은 아주 아주 작은 단풍나무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것도 단풍나무예요?"

"응. 그거는 단풍나무 씨앗이 땅에 내려와 생긴거야." "와! 정말요? 이것도 키울 수 있어요? 저 한번 키워보고 싶는데..."

"그래? 우리 소희가 물도 잘 주고 잘 보살펴 주면 클 수 있지." 하시며 할아버지께서는 모종 삽을 가져와 그 작은 단풍나무를 모종 화분에 옮겨 심어

나의 손에 올려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에서 줄곧 자라온 나는 어떤 작은 식물 하나도 내 손으로 키워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내 손에 있는 작은 단풍나무는 기대감과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집으로 와서 물도 주고 '언제 클까? 1년 후에는 이만큼 크겠지? 2년 후에는 이만큼 클테고...' 하며 단풍나무를 뻗히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희야, 그거 못 키워. 금방 죽을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빠를 뒤로한채 나는 "아니! 할아버지가 물 잘 주고 잘 보살펴 주면 크다고 했어. 나 이거 키울꺼야." 하고서는 계속 단풍나무를 돌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부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단풍나무를 돌보고 할아버지께 가서도 종알종알 연신 말하는 것이 나의 하루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턴가 단풍나무가 시들시들 하더니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는 단풍나무가 죽어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단풍나무가, 단풍나무가 죽었어요."

"그래? 쯤쯤... 괜잖아. 처음이라서 그런거야. 이제 잘 키울 수 있을꺼야."

하지만 다시 작은 빨간 단풍나무를 모종 화분에 옮겨 심어 내 손에 올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나, 잘 키워라."

나는 다시 기대감과 희망을 갖고 집으로 와서 물을 주고 돌보아 주었지만은 단풍나무는 금세 죽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난 키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우리 집 앞뒤로 담이 생기는 게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담이 생기면 할아버지 댁에 가기 어려워 질텐데..." 나는 할아버지 댁에 병 돌려 가야 했기 때문에 담이 생기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담이 생기면 우리 소희 자주 못 보겠네? 이거 서운해서 어쩌나?" 하시며 놀라운 나에게 서운함과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아네요. 제가 자주 놀러올꺼예요.” 씩씩하게 말하는 내게 할아버지께서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환한 미소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새끼 손가락을 걸고 꼭 자주 놀러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 딸들은 모두 시집, 장가가서 도시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내가 할아버지의 유일한 말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담이 생기고서부터 할아버지를 찾게 되는 일이 드물어 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되고나서 2학년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정이,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리워졌습니다.

나만의 단풍나무 할아버지, 도시 속에서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정을 느껴보지 못했던 나에게 많은 정을 베풀어 주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른 거립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셨을 겁니다. 단풍나무를 내가 키울 수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나의 희망과 기대감을 꺾지 않으시기 위해, 그리고 한 번 시도해 보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커가면서 나를 향한 할아버지의 깊은 배려를 알았습니다. 난 할아버지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동안 나는 할아버지께 정을 베푸는 법을 배웠고, 조금이나마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끝까지 말벗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나만의 단풍나무 할아버지로 내 마음속에 남아 그 때 처럼 내가 어떠한 일에 실망했을 때 “괜찮아. 우리 소회는 할 수 있을꺼야.” 하시면 나를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내가 이렇게 훌쩍 커버렸지만,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가을에 나는 단풍나무 아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나만의 단풍나무 할아버지와 추억을 되새겨봅니다.

‘단풍나무 할아버지, 저 소회예요. 자주 놀러 가겠다던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에 할아버지께서 계시던 곳을 보아도 그 자리에는 쓸쓸한 만이 물어내네요. 잘 계시죠? 저에게 웃어주시던 할아버지 모습이, 할아버지의 손길이 그리네요.’

#### ■ 백두산의 기성/ 중·고등부 장려상 광주 문충중학교 3학년 1반 이신우

2001년 7월 21일 토요일 나는 6박 7일 동안의 ‘옛 고구려, 백두산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새벽 3시에 일어나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우리 학교로 향했다. 이런 한밤에, 그렇지만 환한 거리를 실레는 마음으로 달려가니 이대로 중국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학교에는 벌써 약간 긴장한 표정의 친구들, 여러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나와 있었다. 교장선생님의 말씀까지 주의 깊게 들은 후 버스로 인천공항을 향해 출발했다. 이때 시간은 새벽 4시였기 때문에 바로 잠이 들었다. 다시 눈을 떠보니 어둠은 어느새 햇빛에 의해 사라지고 있고 버스는 대전을 넘어 10차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인천공항까지 이어진 그 넓은 도로에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특대형 트럭들이 수없이 달리고, 수많은 작은 승용차들이 그 사이를 질주하고 있고, 멀리 시멘트 냄새가 물씬 풍기는 회색의 대도시와 공장들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어디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다. 우리는 영종대교를 지나 인천 국제 공항에 도착했다. 인천공항에 들어서서는 온통 우리와 철 기둥으로 만들어진 건물과, 첨단시설, 쾌적함, 그리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을 보고 ‘우와~’ 하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우리는 시간에 쫓겨 면세점이란 곳도 구경 못하고 비행기에 탑승했고 비행기는 한참 뒤에 우렁찬 엔진소리와 함께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런 대단한 물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상상이 안 간다. 비행기가 조용히 구름 위를 날고 있을 때 나는 어릴 적 꿈 중의 하나인 ‘파인릿’을 다시 마음 속에 그려본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중국으로 보내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중국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발 밑의 세상을 내려다보며, 또 맛있는 기내식을 먹으며 지평선이 보이는 광활한 땅에 진한 초록색의 작물이 끝없이 심어져 있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버스로 간 것보다 한국에서 중국까지 더 편하고 빠르게 오고 나니 기분이 묘해서 “여기가 중국이냐?” 하는 물음이 궁금하지도 않은데 나온다. 심양공항은 인천공항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구식이었다. 한편 공항 주차장에서는 아주 고물 차가 있는가 하면 벤츠 같은 고급차도 많아 빈부 격차가 심하다는 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탈 버스는 우리들의 눈엔 통차로 밖에 안 보였고 불평을 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심양에서는 매우 좋은 버스라니 어찌됐는가? 약간은 실망했지만 버스가 달리기 시작하고 창밖에 중국농촌 풍경이 펼쳐지니 모두들 밖을 보며 저마다 몇 마디씩 했다. 정말 이곳은 산이 없어 이상할 정도였고 드넓은 토지 위엔 거의 수수만 심어져 있었고, 길가의 대형 광고판은 모두 철판 위에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글씨를 써 놓은 것이었다. 심양까지 가는 길에 수수만 보이니 이 많은 수수를 누가 다 거둘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출발 한 지 한 1시간쯤 뒤에 현대식 큰 빌딩이 나타나더니 곧 심양 시내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정신없이 중국사람들과 길거리를 구경했다.

중국 대도시에는 자전거 물결이 친다더니 이곳 심양도 걸어가는 사람보다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았다. 사람들의 옷차림 또한 볼거리였는데 남자들은 윗도리를 입지 않기도 했고 많은 여자들이 짧은치마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도로에는 매우 큰 사거리 외에는 신호등이 없고 교통량은 많았지만 차들은 마치 물 흐르듯 천천히, 차분히 움직였다. 차의 절반은 택시였는데 택시들은 한결같이 진한 자주색이고 차종도 모두 같았다. 한편 5층 정도의 아파트가 많았는데 페인트도 칠하지 않아 모두 회색이고, 겉모습이 완전히 옛날 아파트였다. 하지만 중심가로 들어갈수록 높고 큰 현대식 건물들이 낡은 건물 사이사이에 우뚝우뚝 서있었다. 나는 이러한 새로운 것들에 나의 눈을 지칠 줄 몰랐다. 열심히 구경하고 있자니 버스는 어느새 우리가 점심 먹을 북한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평양냉면 집에 도착했다. 음식점에 들어서자 북한인 점원들이 우리나라 말

로 인사를 했지만 진짜 북한 사람이 나에게 정답게 인사를 한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아 말이 나오지 않았다. 냉면을 기다릴 때 점원은 우리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환영의 노래를 불러서 북한 노래 잔치를 감상하게 되었다. 나는 ‘반갑습니다’라는 노래를 듣고 내가 정말 북한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다. 한참 후에 냉면이 나왔는데 그때 먹은 평양냉면은 엄청나게 맛있었다. 지금도 나의 코에는 평양냉면의 냄새가 풍기는 것 같다. 점심을 먹고 우리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조선족 제 6중학교를 방문하였는데 그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한 50년 전 공산국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넓은 축구 골대만 있는 운동장에 사복을 입은 학생들이 엄격한 대형으로 서 있고, 정면에 있는 빨간 벽돌의 학교 건물은 담쟁이 덩굴이 반쯤 감고 올라가 있고 창문은 깨져있는 매우 낡은 건물이었다. 오른쪽에는 허름하고 높은 벽돌담 너머로 시멘트 색의 구식 아파트가 보이고, 뒤편에는 규모가 크지만 매우 단순하게 생긴 건물이 윗도리를 입지 않은 장성들에 의해 차곡차곡 높이 지어지고 있었다. 이 공사 중인 건물도 회색이었고, 망치질 소리와 큰 물건들이 부딪치는 소리가 울려 더욱 더 을씨년스럽고 무서운 분위기였다. 그러나 자매결연을 축하하는 행사로써 사물놀이, 판소리, 독창, 장구 춤, 고적대의 행진 등이 시작되면서 운동장은 즐거움이 감돌기 시작했다. 특히 친선 축구 대결에서는 1대 1로 비겨 모두 다 들거울 수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2명 또는 3,4명씩 짝을 지어 민박할 6중학교 학생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갔다. 나는 한재현과 짝이 되어 택시를 타고 김정학이네 집으로 갔다. 정학이는 조금 뚱뚱하고 외향적 성격이며 한국말도 꽤 잘하는 2학년이다.

집에 들어서자 정학이 어머니께서 반겨 주신다. 나는 민박하는 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전에 그럴 것이라고 설명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학이네 집에는 할머니, 아버지, 누나가 다른곳에 가서 없었고, 저녁밥의 반찬은 계란 후라이와 김치, 나물, 아주 작은 갈치튀김, 도라지인데 국도 없었다. 처음 보는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의 환상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남의 집에 와서 언어먹고 잠자는 주제인데 불평하지 않고 맛있는 척 하며 많이 먹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우며 하루를 되돌아 보았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공항으로 가서 여기 중국까지 날아와 6중학교에서 환영식을 치르고 정학이네 집에 와서 잠자리에 눕기까지 20시간 가까이 깨어있는 동안 참 많은 것을 봤다. 재현이와 나는 앞으로의 중국여행은 더 흥미롭고 대단할 것이라 생각하며 곤히 단잠을 취했다.

다음날, 중국에서 아침을 맞아 모한 기본으로 잠에서 겨우 헤어났다.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밥을 먹고 정학이와 함께 집을 나왔는데 정학이가 40분쯤 걸리고, 값은 택시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자고 했다. 택시를 타도 불편한데 기차같이 두 칸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내 버스를 타자고 하더니! 나와 재현이는 더럽고 자리도 없을 것 같아 결국은 택시를 탔다. 지금 생각하니 이때 나는 잘못했던 것 같다. 걸어서 지구 한

바퀴 반 이란 책에서 '한비야'라는 한국 여성은 중국을 여행하면서도 그 나라를 몸으로 느끼고 싶어 일부터 더 고달프고 힘든 여행을 택했는데... 분명 나에게도 시내버스를 타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얻는 것이 더 많았을텐데 말이다. 아무튼 재현이와 나는 학교에 와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부러웠다. 다른 애들이 간 집에서는 외식도 시켜주고 시내도 구경시켜 주고... 특히 맛있는 것을 너무 많이 줘서 정말 배가 터질 뻔했다고 떠들어대는 것이었다. 나는 어쩌다가 이런 집에 가게 되었는지 분하기 까지 했다. 그러나 정확히가 정답게 웃으며 한국어로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는 모습을 생각하니 더 불평을 할 수가 없다.

이날 우리는 먼저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의 궁궐로써, 북경의 고궁 다음으로 크다는 '심양고궁'을 관람했다. 그러나 생각만큼 기대하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다. 다만 금색에 가까운 기와가 눈길에 끌었고, 옛날의 청 왕실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의복, 도구와 궁궐 안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그런데 우리는 궁궐을 더 잘 살펴보려는 것보다 기념품을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선생님과 여행 가이드 아저씨께서 심양 고궁에서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되도록 물건을 사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결국 45원(元)을 주고 판다 꿈이 그려진 떡을 하나 샀다. 45원이면 우리 돈 5000원이 넘으니까 엄청 비싼 충동구매였다.

점심은 만두집에서 먹었다. '물만두'라고 하는데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았다. 배를 두둑이 채우고 다시 버스를 타고 청나라를 건국한 누르하치와 그 황후의 묘가 있다는 '동릉공원'으로 갔다. 공원으로 들어서자 길 양쪽에 뱀 같이 구불구불한 늪은 소나무가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었다. 정말 중국 땅덩이에 걸맞은 모양과 높이였다. 108계단을 올라 성문 같은 곳을 지나자 심양고궁과 비슷한 누런색 외벽의 건물들이 많이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성벽을 따라 한바퀴 돌아보았는데 친구들 눈에는 길이 있어 누구에게나 좋은 산책로가 될 것 같았다. 동릉공원을 떠나며 봐도 다른 것보다 소나무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이제 우리가 탄 버스는 기차역으로 간다. 거기서 연결행 기차를 타고 14시간 동안 달려야 한다. 대도시의 기차역인 만큼 상당히 크고 사람들도 매우 많았다. 2시간 동안 기차를 기다리며 남자들은 가방과 짐을 지키며 곳곳이 기다렸다. 나는 오줌이 마려워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역 화장실에 갔다. 그런데 그 재래식 화장실이 어찌나 더럽던지 똥을 밟고 서있는 것 같았다.

예정대로 2시간 뒤에 기차에 탑승했다. 우리 중국 체험학습단은 칸막이마다 침대가 3층으로 6개가 있는 기차 1칸을 전부 차지했다. 나는 배낭을 선반에 올려놓고 연결 도착후 그곳 조선족 학교에 기증할 카세트는 침대 밑에 넣었다. 처음에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창문을 활짝 열고 침대에 앉아 만주 별판의 바람을 맞으며 지평선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객장감에 젖어보려 했다. 땅이 어찌 이렇게도 넓은가! 나는 광활하다는 말을 이제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옛날 이 별판을 누웠을 용감하고 힘센 고구려인의 함성이 뿔뿔하게 마지막 빛을 발하는 태양 쪽에서 들려 오는 듯하였다. 또 옛날 위인들이 가졌을 큰 뜻과 포부를 생각해보고 나도 이

드넓은 땅을 보며 나의 꿈을 이 세상에 펼쳐 보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먹어 본다.

날이 저물고 몇몇 이들은 먹을 것이 가득한 수레를 밀고 지나 다니는 기차 승무원에게 맥주를 사서 취할 때까지 마시고 어떤 놈은 더 마셨다. 그래서 그들은 비틀비틀 걸어나다며 "나 술 안취했어"라고 외치는 것이었다. 나는 이걸 보고 어른이 되어서도 술에 취하지는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밤에 나는 대철, 상익이와 함께 화투에 몰두했다. 처음엔 방법도 몰랐는데 어느새 나는 대철, 상익이를 상대로 연속해서 이기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자신이 생겨 마지막으로 한점당 1원(元)내기를 했다. 그런데 두 친구가 본 실력을 내면서 상익이가 돈을 쓸어가 버렸다. 그래도 재미있었고, 우리는 피곤해서 곧 잠에 떨어졌다.

"신무야! 일어나." 하는 소리에 잠을 깼다. 오늘은 백두산에 가는 3번째 날이다. 기차는 7시쯤 연길에 도착했는데 나는 깜박 잊고 카세트를 놓고 내려 버렸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이었다. 나는 어쩌할바를 몰랐는데 의외로 선생님들께서 날 진정시키며 역 공무원에게 말하라고 했다. 나는 카세트가 놓인 침대칸의 번호를 기억할 수 있어서 큰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침대 번호는 '1D18'이었다. 정말 큰 일 날뻔 했다. 그래도 나는 다음 역에서 찾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초조하기 그지 없었다. 우리는 먼저 '동방미식'이라는 음식점에서 아침밥을 먹었는데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모두들 먹는 등 마는 등 했다. 그 다음 역에 있는 조선족 3중학교를 둘러 볼뻔을 목에 하나씩 걸어 준 다음 정말로 백두산으로 향했다.

이제부터 6시간은 가야 백두산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거의 모두 잠을 잤다. 불편한 의자와 거의 100dB은 될 것 같은 시끄러운 엔진 소리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렇게 자다 깨어보니 깊숙한 산골마을에 차는 멈춰있었다. 여기서 점심을 먹었는데 나는 밥보다는 먼저 화장실을 찾았다. 그곳 역시 재래식 화장실이었다. 대변을 보기 위해 자리를 잡았지만 나는 긴장을 풀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벽돌로 칸막이가 되어있었지만 높이는 1m도 되지 않았고 그나마 앞이 트여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더 긴장되고 무섭기도 했다. 똥 한번 싸느라고 맥이 다 풀려 버렸다.

이제는 달리는 버스 양쪽으로 거대한 침엽수림이 이어진다. 드디어 우리는 버스로 갈 수 있는 골짜기였다. 먼저 장백폭포를 구경하러 갔다. 아니 가다 말았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로 들리지 않는 몇 백미터 떨어진 지점까지만 갔다. 우리의 주위는 산들로 둘러 쌓여 있었고 앞에는 장백폭포, 그 위로 봉우리들이 보였다. 그런데 멀리 보이는 산들엔 나무하나 없어 거대한 암석 그대로의 모습을 들어내 놓고 있었다. 그런 빼만 보이는 산의 넓은 골짜기 사이로 떨어지는 폭포는 작아 보였다. 그러나 주위의 모든 경관이 처음으로 보는 큰 구조이기 때문에 거리와 크기를 능히 짐작할 수 없었다. 나는 흐르는 물로 세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폭포를 봤지만, 사진을 보는 것 같이 멀리 떨어져서 보기만 하고 가까이 가서 장백폭포를 체험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아까워서 돌아가기가 싫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유황온천의 뜨거운 물에 삶은 달걀을 사먹기도 했다.

이제부터 천지까지 이어 주는 블록으로 된 길을 따라 지프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하얀 자작나무의 숲에서 키 작은 관목들을 지나 풀색의 땅이 나오니 아마도 고산지대에 이른 것 같다. 한편 하늘은 맑게 개어 천지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몹시리치게 좋고 기대되고 흥분된다. 지프로는 금방 저 폭대기에 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보기보다 10배는 멀었다. 지프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60도 정도의 경사를 오직 위만 보며 달렸다. 숨은 차 올랐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다.

아! 드디어 나 이신부가 민족의 성산 백두산의 천지를 정녕 보고 있구나! 천지의 물은 바람으로 용의 비늘무늬처럼 파동이 일고, 2500m이상의 16개 봉우리는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는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하늘의 모든 비를 다 받아 낼 것 같이 벌려서 있었고 저 북한쪽 봉우리에는 구름 한덩이가 천지의 물에 빨려 들 듯이 넘어오고 있었다. 자연이 만든 한반도의 왕관이라 할까! 아주 대단하고 권위 있는 한반도의 지붕다운 모습이었다. 나는 천지를 한 몸으로 안고 싶어 두 팔을 벌렸다. 만약 내가 날 수만 있다면 저 호수의 물 한가운데에 입맞춤을 하고 천지를 한바퀴 돌아볼 텐데... 우리는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부르며 나는 이 백두산이 통일이 되어도 완전히 우리나라의 땅이 못 된다는 사실에 아쉬운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천지를 30분도 구경 못하고 시간상 내려와야 했다. 아직도 천지는 맑고 선명했는데, 날씨가 흐려지지도 않았는데 그만 내려 가야 하구나 아~

지프를 타고 다시 내려오며 나는 천지의 '기상'을 기억하고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다짐했다. 천지의 봉우리들은 하늘을 꿰뚫는 듯 하고, 파란 빛 호수의 물은 세상의 이치와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듯 하며, 그 천지 전체의 자태는 세상을 너그럽게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을 듯한, 이런 '백두산의 기상'을.....

천지의 강동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한 이날 밤은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그런데 천지는 다른 경치와 다르게 사진으로 보면 그 웅장함을 다 알 수 없다.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가?

다음날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 뷔페로 아침을 먹고 용정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윤동주, 함석헌, 김훈 등 항일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용정 중학교를 둘러 보았다. 그러다 아래와 같은 시구와 마주쳤다. "죽는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나는 멋지게 쓰여진 이 글을 읽는 순간 마음으로부터 전율을 느꼈고 저절로 숨이 들이쉬어 졌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부끄러웠고 또 그 시구처럼 살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일출정과 해란강을 보고 북한과 중국의 두만강 국경지대인 도문에도 가 보았다. 그리고 기차를 타기 위해 연길로 가면서 공동장을 견학했다. 나는 반달곰을 구경한 뒤에 곰 슬개즙이 들어있다는 피로를 회복하는 식품을 하나 샀다. 어떤 애는 웅담을 사기도 한다. 오후에 다시 심양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 그런데 이번엔 자리가 뒤쪽박죽이라서 적당히 놀고 잠을 잤다.

중국여행 5번째 날이 밝았다. 우리는 심양에 도착해서 한국식으로 아침을 먹었다. 오랜만에 입에 맞는 음식을 먹게 되어 모두 맛있고 배부르게 먹었다. 그 다음 석회암 동물원 본계수 동물로 갔다.



거기까지 3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쯤 되니 버스 타기가 질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동굴 속엔 물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천천히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동굴 속은 섭씨 12도 정도로 꽤 싸늘했다. 그러나 중유석, 석순, 석회주 등 내용물은 한국의 고수동물 등과 비교할 때 보잘 것 없었다.

이날 점심은 좀 특별했다. 메뉴는 중국식 불고기였는데, 문제는 우리가 버스가장으로 3시 넘어서 점심을 먹는다는 것과 그 동안 식사에 불만이 많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70명이 총 50인분을 먹어 치워버렸다. 이날은 홈스테이를 했다.

중국여행 6번째 날, 사실상 중국여행 마지막 날이다. 아침에 6중학교에 모여 모두 같이 청나라 제2대 황제와 황후의 무덤인 북릉공원을 구경하고 신라유적지도 잠깐 둘러보고 심양시내의 글로리아 호텔에 투숙했다.

다음날, 6중학교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환송식을 했다. 나는 정학이와 주소를 교환했다. 정학이네 집에서 이틀을 묵는 동안 대접은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이 들어 작별이란 게 조금 슬펐다.

비행기를 타고 3시간도 안 걸려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다시 느낀 것이지만 비행기란 기계는 참 신기하고 너무 빨라 외국이 얼마나 먼 것인지 모를 정도이다. 버스를 타고 광주로 갔다. 버스가 그토록 좋게 느껴질 때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우리는 밤 10시에 6박 7일간의 여정의 출발점인 문홍중학교로 다시 돌아왔다. 많은 부모님들이 나와 있었지만 나는 나의 어머니와 동생이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외할아버지께서도 직접 나오셔서 맞아 주셨다.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경험을 시켜 준 부모님께 감사 드립니다.

나에게 이번 여행은 '백두산의 기상'이 가장 큰 득이었다.

#### ■ 벽/ 중·고등부 장려상

김해 중앙여자고등학교 2학년 3반 문혜원

오랜 시간 걷다가  
뒤돌아 보면 당신입니다  
걸음을 걷다 지쳐서 올라다 본 하늘  
그것도 당신입니다  
하루종일 앉아있어도  
당신만 보이는게 서글롭습니다  
언젠가 걷다가 잘못 벗어나면  
당신은 저만치 가 있습니다  
잠시 빠진 함정도  
즐거운 거란 걸 알고 난 뒤  
난 다시 당신을 찾습니다  
수많은 벽으로 쌓인 교실들  
그때도 난 여기가 좋은 모양입니다

#### ■ 신명/ 중·고등부 장려상

곡성고등학교 2학년 3반 김해정

태평소가 길게 울고  
신명이 온 동네를 흥건히 적시면  
아이는  
주술에 걸린 인형처럼  
사립문을 뛰어 넘고  
눈독 발 독을 내달렸다  
숨통을 죄오는 더위에도 좋았다

공망이 냄새 나는 비가 와도 좋았다

어깨춤을 덩실대는  
할머니가 있고  
언제나 발 밑을 비추는  
해와 달이 있고  
멀리서라도 아이를 부르는  
팽과리 소리만 있다면  
얼췌 질췌 좋구나.

누더기 얼룩진  
가난의 옷을 입은 아이는  
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당에 뿌리 박고  
홍겨운 소리 따라  
양분을 빨아 올려  
배고픈 설움을 달랠다

이제는  
망두 망두 내 것이다  
조선 망두 내 것이다  
좌도 농악 높은 소리에 취해  
하늘에 찢고 땅에 찢고  
꼭주 한 잔에 젖어 있는  
젊은이여.

그는 제법 멋들어진 춤사위를  
출 줄 아는  
매절레꽃 닮은 붉은 웃음을  
피울 줄 아는  
술잔 속의 할아버지를  
달아 있는

신명의 자손이다

#### ■ 어머니/ 중·고등부 장려상

곡성고등학교 2학년 3반 이세영

바람이  
녹슨 장대를 사정없이  
후려치는 날,  
파란 노끈으로 공공 묶인  
몸뻐바지엔  
꼭  
내일 다시 입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다.  
밤새 시퍼런 칼바람에  
시달리던 바지는  
이른 아침 서릿발에  
뻗뻗하게 굳어 버렸다.  
채 녹지 않은 바지를  
꺾어입으시는 어머니는  
충충히 하우스 속으로  
사라지셨다.

미처 못따라간 새벽 안개만  
하우스 밖에서 눈물되어 흐르고  
긴 어둠가에서  
아침이 서성거린다.

#### ■ 신데렐라/ 중·고등부 입선

서울 광고등학교 2학년 3반 김영경

지긋지긋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네가 다르고 내가 다른데 저 사람이 걷고 있는 오늘과 내가 걷고

있는 오늘이 어쩔 이리도 같을까... 이걸 도무지 이성적으로 설명 되지 않은 현상이다. 수 천명, 수 만명이 떠들어 대는 세상에서 나를 찾아 낼 뾰족한 방법이란게 머리속에서 묵묵부답이다. 짜증나는데, 하루에도 몇번씩 되내이는 말이다. 구름마저 화가 난 듯 보기 좋게 구겨져 있는 모습에 기가 찬다. 얼마전 영화에서 본 기억이 떠오른다. 크고도 커서 곳곳이 알 수도 없는 이세상이 사실 외계인놈의 장난감 칩 정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나한테 이렇게 품위없이 걸으라고 명령 내린건 어떤 외계인 놈인지 분할뿐이다. 아니지, 내가 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과대망상증이라도 단단히 걸린 모양이군. 외계인이라니... 무슨 일빠진 소린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멋대로 생각하기 좋아하는 이들의 똑같은 망상이다.  
-저리 비켜요

다시 떨어진 지옥이다. 불쾌하게 맞붙은 서로의 몸 사이에 진한 현기증마저 난다.  
똑같은 시간, 언제나 똑같이 나서는 출근 길에 부딪치는 첫 전쟁이다. 기필코 이들 사이에서 승리 하리라. 눈을 질끈 감으며 거세게 밀어붙이는 아줌마들 하고는 다르게 이것들은 안 그런척 하면서 은근히 민단 말야. 그렇다고 밀릴 내가 아니다. 뾰족 구두에 떨리는 듯 미묘한 긴장이 전해 진다. 아차, 방심한 사이에 밀리다니... 그것도 교복 입은 단발머리 여학생에게. 요즘 여학생들은 많이들 먹어서 그런가 힘도 좋구나. 첫 전쟁의 패배에 긴 하루의 무게가 한꺼번에 달려 온 듯 맥이 풀린다.

그런대로 닦은 흔적이 보이는 바닥에 또각 또각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소리가 귓가에 전해온다. 은행원이 웬 구두에 신경쓰냐고 엄마는 무어라 하시지만 그게 모 대수란 말인가. 생글생글 웃음기 어린 인사를 오늘도 어김없이 은행 곳곳에 뿌린다. 언젠가 무언가를 안고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품고... 어설픈 손놀림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지점장님은 오늘도 전전공공이시더. 누구를 가위질 할까 아마도 고민 중이시리라. 허나 내 상관 할 바 아니다. 싸늘하게 질리는 건 내 주위에 그 누군가 정도 일 것이다. 얼마전 결혼한 언니, 혹은 몇 일전 고객과 언성을 높은 내 친구양이 될 터이다. 세상 떠나갈듯 한탄을 늘어 놓겠지만 이게 바로 현실이자 정당한 게임의 법칙인 것을... 이렇게 자신 할수 있는 이유가 무언아고 묻는다면 우습게도 답은 바로 나이기때문이다.

평생을 약속하신 고객님이라는 미명 아래 긴 하루를 그들과 보낸다. 기계적인 만남, 짧게 스친 시간에 나의 모습은 기진 맥진이다. 수 없이 마주치는 얼굴들. 제각기인듯, 그러나 모두 같은 모습으로 휩쓸려 다다 왔다가는 이내 그렇게 빠져나간다. 기계적인 만남에 이제는 회의감마저 난다. 예전엔 이렇게 않았었다. 서로에게 부담없는 관계, 정해진 서너 동작으로 우리의 인연은 끝을 맺는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자리는 어떠한 의미로도 채워져 있지 않는다. 채 완성되지 못한 켄트지의 허전함이라랄까.. 별볼일 없이 보이는 단 몇분간의 만남이 허전함이란 대가로 치뤄 지는게 당연한 걸까. 알지 못했던 세계로, 오직 나만을 갖고 두근거림에 뛰어들었던 여기가 진실한 그곳이 아니라면 생각이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어디일까?  
째깍째깍, 툼툼툼, 툼툼툼... 예수의 구원보

다 더 감사한 시계의 종소리가 한번, 두번 울릴 때마다 나는 그들을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는다.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구하시러 시계만은 잠재우지 않으셨군요! 잠든 듯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 사이에 부대끼며 살아 활력 있는 그 하나를 본다. 마감시간을 앞두고 급박히 은행안으로 뛰어 오는 손님들 처음과 끝이 모두 같은 인생일뿐인데 무엇을 뒤바꾸려고 저렇듯 쫓기고 쫓기며 살아가는 걸까? 푸하하... 참을 수 없는 웃음이 터진다. 그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내가 아니었던 말인가. 누구보다도 멋진 인생을 살아보리라. 언젠가 너희들 모두 나를 여왕처럼 떠받들며 나의 기분을 나쁘고 허우적 되겠지. 퇴근을 알리는 마지막 종소리에 내 꿈속의 꿈이 흩어진다.

-여기요

딸까지 낳아 어엿한 엄마가 된 언니 집으로 가는 길에 택시를 잡아 탔다. 거기에 가면 조금은 삶의 향기를 맡을 수 있으리라. 늦은 오후시간, 세상에 찌든 내 모습이 유리창에 비춰 보인다. 저기 보이는 나는 진실한 내가 아니다. 요즘 정말 내 자신을 나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다. 언제나 이상만을 쫓던 나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왠지 주춤주춤하는 정신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분명 똑바른 길을 알고 있는데, 조금은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아졌다. 한순간의 방향이 어서 끝나기를, 그리고 세상에 의해 옳은 길이라 정해진 그 길을 서둘러 나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벌써 몇번째 신호등에 걸린 택시처럼 내 이상을 향한 마음도 어느 장난기 어린 신호등의 빨간불에 멈춰있으리라. 출발하는 택시 걸을 구세군의 빨간 모금함이 스친다. 어느 물렁한 사람들이 저 통에 거금의 돈을 넣었다지.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겁 하나 먹을 줄 아나. 세상은 언제나 강자이기에 그대로 있다. 이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빨간 모금함은 매년 그 자리에 있지 않구나. 마음을 합쳐 크게 한탕 도왔다면 빨간 통이 조금씩 움츠러드는 시늉이라도 보였을 것이다. 그러지 않는 이상... 잠시만 생각해 져어든 사이 택시요금은 썩중 뛰었다. 택시기사의 엉터리 조작술이겠지. 세상에서 나를 감추듯 황급히 요금을 지불하고는 뒤도 안보고 걸었다.

명품... 찰칵... 따스한 온기가 나를 맞아준다. 가족이란 언제나 그랬듯 눈물나게 정겹다. 이기주의라는 주위에 평에 무색하게도 나는 가족이라는 도피처를 가장 사랑한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어루만져 주는 힘이 있다. 안도감에 커다란 기지개를 펴자 곧 미운 일곱 살의 조카가 보란 듯이 두손을 편다. 예잉, 이진 못하겠지? 야단 맞겠지만 침대 위에 썩중 올라가 두 손으로 천장을 거뜨히 받친다. 자존심 하나 먹고사는 일곱 살이기에 분함이나 아무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잠깐의 승리에 도취 될 사이도 없이 이 만큼 빼죽 나온 조카의 입과 번쩍 치켜들은 주먹을 피할 공리에 머리 속이 난리가 났다. 그때 문득 침대 밑에 빼꼼이 고개를 내민 동화책이 보였다. 거친 세상도 평정한 내가 이런 어린애쯤이야. 조카의 주먹 사이를 아슬아슬 피해 무사히 동화책을 손에 쥐었다 이리 와, 이모가 재미있는 동화책 읽어 줄게. 썩 캐키지 않다는 듯 엉거주춤 서 있는 조카에게 다음에 올 때에는 마루 인형을 사주겠노라 약속 도장까지 찍고 나서

야 무릎에 앉힐 수 있었다. 옛날에 마음씨 착한 신데렐라는 계모에 구박에도 슬퍼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각박한 세상에 팍팍도 견디는데 그걸 계모에 구박이 무엇이 대수라, 흥!- 그런데 어느날 왕자님이 사는 궁전에 파티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리에 참가하기 위해 두 언니와 계모는 신데렐라에게 어려운 집안 일을 맡긴채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드르릉~쿨.. 어이구, 현관 밖은 아직도 시끌시끌 할 시간인데 천하 태평 잠도 푹푹 잘 자는구나. 하긴 꼬맹이가 무슨 걱정이 있을라구. 그나저나 참 이상한 일이었다. 어린시절에 보고, 또 보고, 또 보았을터인데 생전 처음 보는 동화 같디나. 슬픈 일이었지만 이제는 동화 속의 이야기가 비춰지는 모습 그대로가 전해지지 않았다. 그 이야기 속에 나의 이성이, 세상의 잣대가 맞물려 세로이 단장한 듯 다시 나타났다. 자기 실속도 못 챙기고 어리석게 구박이나 받고 사는 신데렐라가 안스럽다는 생각을 지나쳐 어리석어 보였다. 한 장씩 넘기며 재구성 되니 해설이 줄줄이 흘렀다. 어렸을 적에는 '분명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구나' 라고 느꼈을 것이다. 현대 지금은 그게 아니다. 성공을, 성취를 위해서 착한 일을 쌓아 두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의례껏 동화책 속에 주인공들은 언제나 복을 받고 세상 누구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다 갔다고 하질 않았다. 내가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나. 그들처럼 착한 듯, 모자란 듯, 어려운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줄 듯이 산다면 언젠가 동화 속 행복이 나에게 오지 않으리라라고 누가 장담하리오. 젠장. 더러운 먼지들이 내 시야마저 물들었고. 나를 조종하는 작가님이 어떤 결론을 맺든 다 부질 없는 것이다. 인생은 스스로가 개척한다고 하질 않된다. 더럽게 살지 않아도 나만의 행복을 하나 둘 찾아 나서는 즐거움 또한 견줄 바가 무엇일까. 악착같이 성공 아니면 실패, 나 아니면 너 이러한 갈래의 길에 추하게 매달려 왔던 것이 바로 나라는 인간이었다. 20년 넘게 쌓아 온 내 인생이 어리석은 전리품들의 완성작으로 둘 수는 없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용기 없는 자가 또한 나 아닌가. 후훗... 그래도 아직은 네 모난 틀의 꼭두가시 세상에 미련을 못버린 모양이군. 뒷말이 쓸쓸한 나름대로의 결론을 되뇌이며 순진한 듯 꿈속에 잠든 조카를 바라보았다.

-저리 비켜요

위잉... 비디오 테잎을 되감듯 어느새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끼었다. 마치 어제의 나처럼, 그제의 나처럼. 그리고 내일의 내 모습이리라. 부대기는 몸을 살며시 빼들린다. 굳이 저들과 얼굴을 찌푸릴 이유가 뭐가 있을까. 웃으며 지내기에 도 모자른 하루일텐데. 갈잡은 하얀 마음이 새삼 놀라는 내 모습에 붉게 물든다. 이만하면 오늘 하루는 최고의 날이 아닌가! 적어도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맞이하는 아치의 공기. 온 몸을 새로이 하듯 한껏 들이킨다. 흥, 서울공기가 그리 유쾌한 기분은 아니군. 시꺼먼 매연 속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던 말인가. 바보스런 모습인데도 자존심양은 별 다른 반응이 없다. 굵이 낮은 구두에 울리는 소리가 맑지만은 않다. 정리해고의 막이 열렸음을 알리듯 '따닥따닥' 발걸음이 고요한 적막 사이를 머쓱한 듯 다가가간다. -여어.. 미스 강 이제 오나 정해진 게임의 법칙처럼 언제나 하린 나의 역할

이었다. 저런, 지점장님이 저런분인 줄은 몰랐는 걸. 저건 이쯤에서 내가 해야 할 대사가 아니던가. 검은 고양이와 꼬리를 살짝 밟은 듯 나는 움칠 거렸다. 미묘한 변화로 행복했던 하루가 아주 화려한 장식을 준비했노보다. 하지만 이런 내가 등장할 장면이 아니다. 이유있는 안도감을 가면에 맡긴채 어서 유죄를 선고 하시지요. 능력없음이 죄가 되는 것일테니깐.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서는 빠빠용의 석방으로 다가 올 것이다. 유죄판결과 더불어 궁색스런 변명을 주절대는 지점장을 뒤로 한채 쿡방귀나 꾸며 폼나게 은행문을 여닫았다. 오늘 하루는 정말 재수가 좋군. 언제 한번 상사의 앞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었겠나. 날아갈 듯한 해방감.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었다. 누구라도 현실 도피라고, 뭐 해먹고 살거냐고 입만 뺏긔 한다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다 내가 결정한 일이다 이까짓 은행에서 짤렸다고 세상 다 산것도 아니다. 길은 얼마든지 있다. 물론이지. 이전 나만의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헐어진 책을 뒤쳐 나와 새로운 동화공으로 성큼 들어섰다. 분명이 동화에선 내가 주인공일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작가가기 때문이다

### 글짓기부문 당선작(초등부)

■ 500원 동전속의 학/ 초등부 대상  
곡성 죽곡초등학교 4학년 김보라

500원 동전속의 은빛 학

외로워  
홀로 남겨지고  
동전 감옥속에  
갇혀서  
자유롭게  
저하늘을 날고 싶어도  
그것은  
작은 소망일뿐  
학아 학아  
더욱더 축복받아  
저하늘을  
등뿔 가져보렴

■ 코스모스/ 초등부 금상  
담양 고서초등학교 1학년 1반 김선진

무얼 먹어 저리도  
키가 컸을까?  
하늘 먹고 컸겠지.  
바람 먹고 컸겠지.  
무얼 발라 얼굴은  
저리 예쁠까?  
햇빛 발라 예쁘겠지.  
달빛 발라 예쁘겠지.  
나보다 예쁠라...  
나보다 키를라...

■ 나뭇잎 하나/ 초등부 은상  
곡성 죽곡초등학교 6학년 이세란

모두 떠나버린  
빈 가지에

혼자 남아 떨고 있다.  
나뭇잎 하나,  
긴~ 여름...  
가지가 무겁도록 나풀거러더니  
쌀쌀하고 무거운 바람에...  
하나, 둘...  
갈 길 찾아가고  
눈보라 속에 팔랑대는 나뭇잎 하나...  
이 나뭇잎은 이제 어디로 갈까?

■ **푸욱 뻗은 그림자/ 초등부 동상**  
전남 장흥초등학교 4학년 2반 정우정

줄줄 따라다니네  
내가 그렇게도 좋니  
심부름 가는길 심심해서  
말동무나 되려 했더니  
그림자는 묵묵히 말이 없네  
웃도 검정밖에 못입고  
친구도 나밖에 없네  
팔 내밀어 안아줄까  
뒤뚱뒤뚱 닭싸움 놀이해줄까  
이제부터 말동무 되어줄게.  
푸욱 뻗만 길어진 그림자

■ **변신천재 나무/ 초등부 동상**  
여수 문수초등학교 2학년 3반 김푸른

나무는  
변신 천재  
여름에는,  
초록색 나뭇잎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그리고 봄에는  
연두색 나뭇잎이  
파릇파릇 돌아나고,  
가을에는  
빨간색 노란색  
아주 예쁜 색 옷을 입지  
그리고 겨울에는  
무슨 모습으로 변신 할까?  
웃도 안 입고,  
눈 맞아 가며 눈웃을 입지.

■ **우리할머니/ 초등부 동상**  
전남 장흥초등학교 3학년 3반 하유진

우리할머니 손은 요술손.  
바늘과 실만 잡으면,  
뭇 만드는 것 없어요.  
요리조리 요리조리  
실과 바늘 돌리면서,  
잘도 만들지요.  
스웨터도 똑딱  
조기도 똑딱  
할머니의 마음은 천사.

아무리 손이 아파도  
"이것은 큰 손녀 것"  
"이것은 작은 손녀 것"  
"이것은 외로운 이웃 할머니 것"

.....  
하루도 실뿔이 없어요  
할머니 마음은 천사마음  
우리 할머니 가까이 사신다면  
날마다  
허리, 어깨  
주물러 드릴텐데.....

■ **년 알고 있니?/ 초등부 동상**  
고흥 과역초등학교 6학년 1반 송종면

파란 가을 하늘이  
널 부르는 것을  
년 알고 있니?  
코스모스가 손 흔들며,  
널 반겨주는 것을  
년 알고 있니?  
새들이 한 자리에 모여  
널 위해 연주하고 있는 것을  
년 알고 있니?  
알고 있을거야  
너는 알고 있을꺼야  
가을을 알리는 친구들의 모습을...  
너를 향한 따뜻한 마음의 냄새를...

■ **홍도/ 초등부 동상**  
신안 흑산초등학교 신홍분교 6학년 1반 김명옥

내가 사는 곳은 남쪽 바다 끝에 자리잡은 조그만  
한 섬 바로 홍도다.  
홍도 이름의 뜻은 바위가 붙어서 그렇다고 한다.  
홍도는 공기가 깨끗하고 바닷물이 맑아 관광객 들  
이 많이 온다.

홍도의 자랑거리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양식이  
아니고 자연산이라는 것이다. 특히 홍어, 해삼, 돌  
김, 돌미역 등도 바다에서 생산한다. 관광객들은  
홍도 회맛이 다른데서 먹는 것보다 맛있다고 다시  
찾는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또 갯바위 낚시는 관  
광객 아저씨들이 가장 즐기는 것이다. 우럭, 돌돔,  
감성돔 등 여러 가지 고기들을 잡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와 동생이 함께 살아가고 있  
는데, 아버지께서는 일을 하시다가 손가락 신경이  
끊어져서 일 하시기가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배를 타시며 쉬운 일을 하십니다. 저  
는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쉬게 하고 싶어 집 안 일  
은 제가 합니다.

저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빠 손을 고쳐 드  
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모할머니를 따라 김을 팔  
아서 용돈으로 쓰기도 합니다.

홍도에 오면 이것을 안하고 가면 후회 한다고 합  
니다. 그건 바로 유람선으로 구경하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고, 유람선에 뱃  
배가 대면 맛있는 회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회  
맛은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도에는 홍  
어도 유명하지만, 홍어를 잡는 것은 힘이 많이 든  
다고 합니다. 홍어는 낚시란 것을 주낙에 일일이

끼워 잡습니다. 홍어를 많이 잡으면 어부들은 좋  
아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홍어 배가 고기를 잡  
아오면 도와주려고 선착장에 모두 나옵니다. 사람  
들은 자기 일도 아니면서 도와주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홍도에는 해녀도 있습니다. 해녀들은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 전복, 소라, 해삼 등을 잡아 오십  
니다. 해녀들은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  
니다. 물때에 맞추어 간답니다. 해녀 엄마들이 힘  
들게 잡아온 해산물은 관광객들에게 팝니다. 관광  
객들은 더 싸게 주라고 합니다. 나는 해녀들이 깊  
은 바다에서 잡아온 해산물 값을 깎아 주라는 것이  
이상할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도 합  
니다.

배를 안전하게 항해하게 해주는 집! 등대!  
등대는 바다에 안개가 끼면 두가지 방법으로 신호  
를 보냅니다.

첫째 '싸이렌 소리'로 알려주고, 두 번째는 '불빛  
으로 बै깅을 안내'해 줍니다. 등대는 산책길로도  
좋습니다. 관광객이 새벽 아침 산책도 많이 갑니  
다. 요즘 등대 밑에 있는 바다에 부두의 연결 공사  
를 하고 있는데, 완성되면 낚시터도 되고 풍양으  
로부터 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홍도는 돌 갯도 유명합니다. 돌 갯은 무 방부제  
로 길러서 김치를 담궈 먹는데 참 맛있어요. 관광  
객이 돌 갯 김치 맛을 보고 팔라는 소리도 많이 한  
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홍도에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 이유는 아이엠에프가 다가 왔다  
갔기 때문이라, 생각도 해 봤는데 꼭 그렇지만도  
아닌가 봐요. 홍도 1구는 정 반대로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요

나는 패색선이 홍도 1구에서 승선하고 하선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1구는 2구보다 편리하니  
까요. 홍도 1구에는 보건소, 농협, 우체국 등이 있  
어 문화 혜택을 많이 받는 편이다.

그리고 홍도는 다른 바닷물보다 더 맑다. 고기가  
해엄치고 해초가 팔랑거리는 것이 다 보입니다.  
여름이면 바위에 미역이 자라고, 겨울이면 김이  
자란다.

해초가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저절로 제 시  
기에 자란 것이 참 신기하다. 조개에는 거북손과 굴  
이 붙는다. 또 가을과 겨울 사이에 산에는 잣밤 이  
라는 작은 밤이 떨어져 주어서 먹는다. 그리고 산  
에는 산 더덕도 캔다. 우리 홍도는 해산물이 풍부  
하고 경치가 아름답고 인심이 좋고 사람들도 친절  
한데 보건소 같은 기관이 많이 생기면 더 좋을 것  
이다. 그렇지만 관광객들은 공기가 깨끗하고 물이  
맑아 오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홍도를 더 더욱 사랑합니다.

■ **외가에서 가을 느끼기/ 초등부 장려상**  
곡성 서초등학교 5학년 1반 김영미

작년에는 우리 가족 모두 가을맞이를 하기 위해  
서 죽곡에 있는 외갓덕에 다녀왔다.  
"어서 오나라. 야휴 자주 좀 오지. 명절에만 보면  
이 할머니는 우리 손주가 보고 싶어서 자꾸만 눈  
이 아른아른 하는데..."  
외할머니는 왜 자주 오지 않는냐고, 나를 나무라  
셨다. 그렇지만, 할머니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안다. 할머니 말씀대로 외

갯덕에 자주 들러서 할머니의 안부도 여쭙보고, 동생들과도 재미있게 놀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할머니께서는 집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을 총 동원하시어, 우리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제 뒷산에 가서, 감을 따자꾸나. 얼마나 감이 잘 익었는지 모른다.”

외갓덕의 동생들과, 그리고 외삼촌, 외숙모와 함께 맛있고, 탐스러운 감을 따기 위해서 뒷산으로 올랐다. 산골이라서 그런지, 공기가 더욱 맑았다. 이곳에는 감나무가 아주 많이 있었다.

“한 그루, 두 그루... 우와 감나무가 아주 많다!” 감이 탐스럽게 열려서 나의 입은 군침이 고여 있었다.

“자 이제 감을 따 볼까?”

외삼촌께서는 나무 위로 올라 가셔서, 하나, 둘씩 감을 따다. 몇 몇 감은 짙은 맛도 있었지만, 입 안에서 사르르 녹는 홍시의 맛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삼촌께서는 감 따기의 도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을 잘 따셨다.

가을이 비춰주는 햇볕에 감이 더욱 더 맛있고, 탐스럽게 자라는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좋았다. 삼촌께서 감을 따시는 동안 동생들과 나는 삼촌께서 주는 감을 받았다. 하나 둘 받으니까, 이마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이렇게 맛있는 감을 약 한 시간 가량 따다. 우리가 가져 온 큰 바구니에 가득 쌓였다.

“삼촌, 이제 그만 따고 집으로 가요. 감 맛이 어떤가 한번 맛 좀 보고 싶어요. 빨리 가요. 군침 도니까요.”

삼촌과 그리고 외숙모, 동생들과 외갓덕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가족은 감파티를 열었다. 내가 맨 처음에 손에 든 감은 바로 홍시였다. 빨강고, 탐스럽게 생긴 게 꼭 아기의 볼 같았다. 반으로 쪼개어서, 먹은 이 감은 아주 맛이 있었다. 시골에서 먹는 감을 누가 맛이 없다고 할까?

저녁때가 되어서 우리 가족은 외식을 하러 갔다. 거기에서 어린이들은 통닭을 먹고, 어른들은 회를 드셨다. 밖에는 가로등이 밝은 달보다 더 빛나고 있었다. 외갓덕에서 느낀 가을은 너무도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계절은 바로 가을이라는 걸 새삼 알게 되었다.

시골 생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

■ 그림자/ 초등부 장려상

전남 장흥초등학교 2학년 6반 서리라

그림자는 이상하다

아침엔 키다리

낮엔 난쟁이

하루종일 졸졸

나를 따라 다니다

밤이 되면

어디로 숨어 버리죠

공작새

우리 학교 공작새

너무 예뻐요

빙글빙글 돌다가

꼬리치면

하늘의 무지개가

생기지요

■ 단짝친구/ 초등부 장려상

전남 장흥초등학교 6학년 1반 정여민

봄에는 나뭇가지

파릇파릇 새싹돋고

여름에는 나뭇가지

꽃봉우리 맺고

가을에는 나뭇가지

색색옷 갈아 입고

겨울에는 나뭇가지

웃을 다 벗는다.

계절은 계절은

나무의 단짝친구

■ 겨울나무/ 초등부 장려상

고흥 송산초등학교 5학년 1반 김연주

겨울나무는 안테나

바다를

건너오는

봄소식을 듣는다.

겨울 나무는 안테나

산을

넘어오는

봄소식을 듣는다.

나는 안테나

나무를

통해

봄소식을 듣는다.

■ 가을과 함께 영근 씨앗/ 초등부 장려상

고흥 송산초등학교 5학년 1반 안수정

“자, 나가자.”

힘찬 선생님의 말씀에도 친구들의 얼굴이 시무룩해졌다. 선생님은 식물 가꾸기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지난 봄에는 잡초 속에 쓰레기가 뒹굴던 화단에 우리들을 데리고 목화씨앗, 해바라기 모종을 심으셨다.

“가서 호미 들고 오너라.”

선생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은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 숨을 생각도 하고, 도망칠 생각도 한다. 하지만 선생님은 다 알아차리시고 호되게 꾸짖으시며 일을 시키신다. 호랑이 선생님도 얼마나 식물을 좋아하시는지 꽃들이 선생님 발자국 소리를 알아들을 정도였다.

여름 땀벌에서도 계속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선생님. 여름이 되자, 우리가 심은 해바라기는 벌써 꽃을 피웠고, 목화는 한참 자라고 있었다. 아이들은 국화 모종을 옮기면서도 계속 도망칠 생각만 하였다.

드디어 바람이 서늘해졌다. 그 동안 선생님한테 배운 목화의 유래, 물주는 방법 등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식물과 친해지고 있었다. 목화에는 노란색, 자주색 예쁜 꽃들이 피었고, 꽃들이 다 지고 나니

동그란 다래가 맺혔다.

“선생님 어렸을 적에는 간식이 없어서 이웃집 다래를 함께 몰래 훔쳐먹기도 했단다. 한번 먹어볼래?”

그렇게 선생님께서 말할 때, 선생님은 아버지처럼 자상하시다. 한번 어떤 맛이었는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한번 깨물었는데, 너무 시름했다. 맛있는 다래를 훔쳐먹다니?

곧 다래가 떨어지더니 커다란 송म치기가 나오는 것이었다. 폭신평신했던 숨이 따뜻하였다. 이 숨이 옷이 되고 이불숨이 되어 우리를 따뜻하게 해 준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바로 그런 숨을 우리가 수확한 것이었다.

드디어 선생님과 우리 반 아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었다. 우리는 곧 송М치기에서 씨를 골랐다. 가만 목화씨 속에는 우리들 꿈이 담긴 채 내년을 기다릴 것이다.

학교 울타리 사방에는 오이같은 길쭉하고 탐스러운 수세미, 동그런 주황색 여자, 귀여운 조롱박..... 우리 반 뿐만 아니라 다른 반 아이들도 우리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장남꾸러기 우리들과 우리반 선생님의 노력이 쓰레기 더미였던 한 화단에서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조용하지만 한 텅 빈 운동장이 갑자기 확 찬 느낌이 든다. 풍성한 가을은 맘 흘려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선생님과 함께 한 시간들이 씨앗 속에 박혀 내년에 도 싹이 터서 또 자라겠지.

겨울호를 발간하면서 제2회 효녀심청 전국 청소년 예술공모전 수상작 모두를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지 못한점을 사과 드립니다.

서예부문 심사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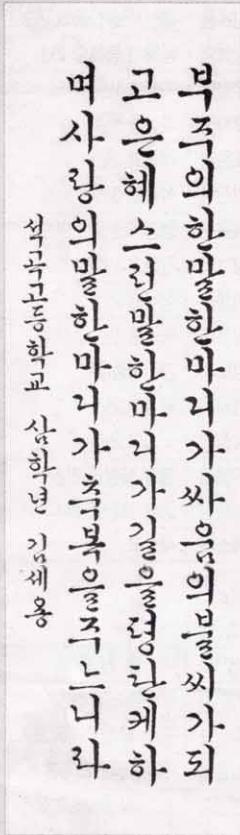
제2회 효녀심청 전국 청소년 예술 공모전 서예부문 심사평에 앞서 전년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준데 대해 심사위원으로서 고마움과 동시에 어려움을 함께 느꼈다. 우리가 늘 접하는 여타 공모전에서 느끼는 감흥보다 맑고 티없음과 작품의 질적 수준 및 표현의 다양함이나 자신 스스로 자각 지심을 느낀다.

출품수를 살펴보면 전년에 비해 약 세배 정도 늘었고 작품의 수준 또한 한 작품도 제외 시키기 아까울 정도로 정성과 노력이 엿보였다. 지도해 주신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분들께 고마움을 표한다. 특히 몇몇 학교의 수준은 모두다 훌륭하였으나 입상수의 제약에 부득이 낙선처리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초등부는 전년에 비해 다양함과 수준의 향상에 심사의 어려움을 느꼈고 중고등부는 함께 심사를 하였는데 중학교 학생들의 작품에 비해 고등학교 학생들의 작품이 일드함을 느낄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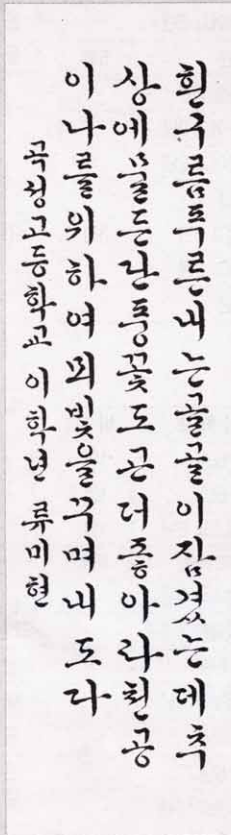
아울러 이대회를 계기로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서예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좀더 많은 입상자 선정과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하는 명실공이 전국적인 효과 예의 정성을 계속 발전시키는 공모전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심사위원/ 조용민, 이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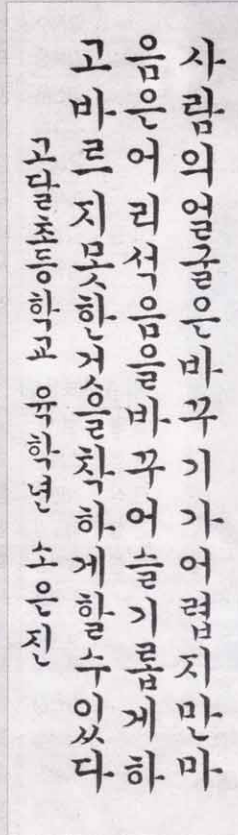
서예부문 수상작(대상 및 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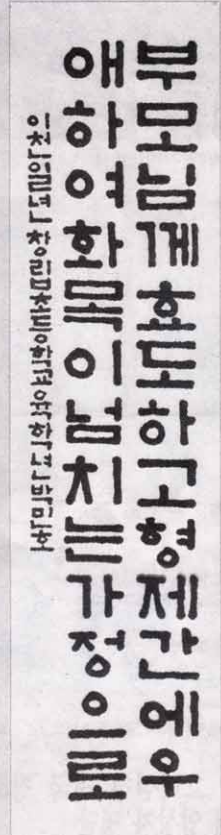
▲ 중고등부 서예부문 대상  
석곡고등학교 3년 김세용



▲ 중고등부 서예부문 금상작  
곡성고등학교 2년 류미현



◀ 초등부 서예부문 대상작  
고명초등학교 6년 소은진



▲ 초등부 서예부문 금상작  
상림초등학교 6년 박민호

그림부문 심사총평

결실의 기쁨과 고마움이 가득한 늦가을에 치러진 제2회 심청 전국 청소년 예술 공모전이 예년에 비해 더 많은 관심과 성원속에 훌륭히 치러짐을 기쁘게 생각한다.

초·중·고 총 484점의 다작이 쏟아졌고, 작품 수준 또한 전국 어느 공모전에 비해 손색이 없어 심사기준 설정의 어려움이 많았다.

초등부 대상작(구례북초 4년 이미지)은 화면 가득 꼼꼼히 채색되어 있으면서도 뛰어난 구성력이 큰 특성이었고, 금상작(광주 화정남초교 3년 김하)은 큰 구도속에 주제를 크게 강조·생략하면서 많은 붓터치 없이 깔끔하게 채색한 것이 훌륭했다.

중·고등부 대상작(광주 광덕중 1년 김진)은 작고 강한 붓터치가 다소 어색했지만 풍경화에선 표현하기 어려운 탁찬 구도와 균형의 안정감이 훌륭했으며, 금상작(곡성고 3년 조현주)은 소품 하나하나의 뛰어난 묘사력이 훌륭했으나 구도의 비균형과 공간의 허술함이 아쉬웠다.

이외 모든 입상 및 낙선작이 훌륭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여 대단히 기쁘며, 결과와 상관없이 먼 미래의 더 큰 목표를 향해 더욱 정진 하길 바란다.

응모를 위해 힘써준 학생 및 교사와 학부모께 감사드리며, 2002년 대회엔 더많은 노력과 관심으로 다시 만나뵙길 기대한다.  
(심사위원/ 박지택, 조장규)



▶ 중고등부 그림부문 대상작 (광주 광덕중학교 1년 김진)  
▲ 중고등부 그림부문 금상작 (곡성고등학교 3년 조현주)





▲ 초등부 그림부문 대상작 (구례북초등학교 4년 이미지)



▲ 초등부 그림부문 금상작 (광주 화정남초교 3년 김하)

### 제2회 효녀심청 전국 청소년 예술공모전 입상자 명단

#### 글짓기 부문(초등부)

상명	성명	출신 학교	비고
대상	김보라	죽곡초교 4년	1명
금상	김선진	담양 고서초교 1년	1명
은상	이세란	죽곡초교 6년	1명
동상	정우정	장흥초교 4년	5명
	김푸른	여수 문수초교 2년	
	하유진	장흥초교 3년	
	송종면	고흥 과역동초교 6년	
	김명옥	신안 흑산초 신흥분교 6년	
장려상	김영미	곡성서초교 5년	5명
	서리라	장흥초교 2년	
	정여민	장흥초교 6년	
	김연주	고흥 송산초교 5년	
	안수정	고흥 송산초교 5년	

#### 글짓기 부문(중·고등부)

상명	성명	출신 학교	비고
대상	이수진	김해 중앙여고 3년	1명
금상	윤지은	춘천여고 2년	1명
은상	김항남	김해 중앙여고 2년	1명

동상	박소희	천안 광풍중 3년	5명
	노현주	김해 중앙여고 2년	
	김가나	영광고 2년	
	김세희	여수 부영여고 2년	
	강지수	서울 풍문여고 3년	
장려상	김혜정	곡성고 2년	5명
	이신무	광주 문흥중 3년	
	김유리	광주 동신여고 2년	
	문혜원	김해 중앙여고 2년	
	이세영	곡성고 2년	
입선	김성미	부산 가야고 3년	3명
	김영경	서울 광양고 2년	
	고옥란	영광고 2년	

#### 서예 부문(초등부)

상명	성명	출신 학교	비고
대상	소은진	고달초교 6년	1명
금상	박민호	창립초교 6년	1명
은상	이금양	광주 계림초교 6년	1명
동상	장기승	곡성서초교 5년	5명
	김정훈	장성 사창초교 6년	
	강미경	겸면초 마삼분교 6년	
	정광철	창립초교 6년	
	정은지	신안 가거초교 3년	
	김미숙	고달초교 3년	
	박상진	죽곡초교 5년	
	강동엽	장성 사창초교 6년	
	박길환	죽곡초교 5년	
	이현태	나주 금천초교 3년	
입선	이다솜	창립초교 6년	19명
	이영진	죽곡초교 3년	
	최윤희	겸면초 마삼분교 5년	
	정세희	함평 나산초교 5년	
	김태훈	나주 금천초교 3년	
	박해민	나주 금천초교 3년	
	김현숙	함평 나산초교 3년	
	강경은	겸면초 마삼분교 6년	
	백 승	장성 사창초교 5년	
	박솔희	죽곡초교 4년	
	임가영	고달초교 3년	
	임현수	고달초교 5년	
	진설희	고달초교 4년	
	김아린	함평 나산초교 5년	
	권일순	겸면초 마삼분교 6년	
	김은정	창립초교 6년	
	기은지	죽곡초교 4년	
	장옥재	장성 사창초교 4년	
	김선진	고달초교 6년	

#### 서예 부문(중·고등부)

상명	성명	출신 학교	비고
대상	김세용	석곡고 3년	1명
금상	류미현	곡성고 2년	1명
은상	임초롱	용인시 송산중고 2년	1명
동상	장혜영	동해시 동해중 2년	5명
	우정현	곡성고 1년	
	오치정	곡성중 3년	
	조은경	석곡고 2년	
	김진아	석곡고 3년	
장려상	박은선	영광 묘량중 2년	5명
	장보라	곡성고 1년	
	최용순	석곡고 2년	
	김유미	죽곡중 1년	
	김보배	강진여중 2년	
입선	김지은	곡성고 2년	5명
	황정인	곡성고 2년	
	진달래	영광 묘량중 2년	
	이화진	영광 묘량중 2년	
	이소라	곡성고	

#### 그림 부문(초등부)

상명	성명	출신 학교	비고
대상	이미지	구례북초교 4년	1명
금상	김 하	광주 화정남초교 3년	1명
은상	임성실	구례중앙초교 6년	1명
동상	진경숙	광주 화정남초교 3년	5명
	김수진	여수 봉산초교 2년	
	성성용	겸면초 마삼분교 2년	
	최승희	광주 화정남초교 1년	
	박광호	구례북초교 1년	
장려상	이원호	구례중앙초교 2년	5명
	박성진	곡성 겸면초교 2년	
	류수빈	광주 마재초교 1년	
	송지은	광주 화정남초교 4년	
	임진아	광주 화정남초교 2년	
입선	심지우	곡성 겸면초교 2년	19명
	오진경	구례북초교 2년	
	박상은	담양 고서초교 1년	
	엄동석	겸면초 마삼분교 1년	
	김루비	광주 화정남초교 4년	
	이기연	구례북초교 6년	
	박세연	나주 금천초교 2년	
	정유진	순천 왕조초교 5년	
	이성실	곡성 창립초교 2년	
	임재성	곡성 고달초교 3년	
	정가영	곡성서초교 1년	
	이예은	순천 왕조초교 2년	

*	이예은	순천 왕조초교 2년	
*	김지연	곡성서초교 2년	
*	신희경	순천 왕조초교 5년	
*	박솔희	곡성 죽곡초교 4년	
*	최수연	광주 유덕초교 6년	
*	선수진	나주 금천초교 1년	
*	정진오	고흥 풍양초교 2년	
*	권혁진	곡성 고달초교 2년	

그림 부문(중·고등부)

상명	성명	출신 학교	비고
대상	김 건	광주 광덕고 1년	
금상	조현주	곡성고 3년	
은상	한선자	곡성고 3년	
동상	한송이	곡성고 1년	5명
*	김 솔	강진여중 2년	
*	최종명	곡성고 1년	
*	이난초	곡성고 2년	
*	박정희	구례여중 2년	
장려상	김성은	강진여중 1년	5명
*	김영미	광주 효광여중 1년	
*	오진영	곡성고 1년	
*	이예은	구례여중 2년	
*	설민수	청원 오창고 2년	
입선	이현중	곡성고 1년	5명
*	백민희	강진여중 3년	
*	권민희	곡성고 2년	
*	이다해	강진여중 2년	
*	권민희	곡성고 3년	

제2회 효녀 심청 유치부 사생대회

주최: 곡성문화원

일시: 2001년 10월 15일

장소: 곡성군민회관 광장

제2회 효녀심청 유치부사생대회 그림부문 심사평에 앞서 아이들의 그림을 그리는 행위나 그려진 결과물들로 평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부득이 가려내야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출품한 그림의 평가기준은 '생각과 표현의 자유로움, 상황에 대한 색다른 상상력 및 교훈적 연상성'으로 삼았다.

예년에 비해 더 많은 출품작들로 수작들이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친구, 가족, 놀이 등 일상적인 예년의 주제들을 벗어나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상태와 주의 깊은 관찰력을 통해 주시할 수 있는 자연 등 주제의 다양성이 아주 새로워진 현상이라 생각한다.

다만 참여한 유치원에 따라 표현의 방법과 의도된 채색 등 그림의 성격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가 있어 조금은 안타까웠다. 어린이들에게 있어 그림은 그리는 행위나 표현방법의 중요성 보다는

더 넓고 자유롭게 생각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가르치는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생대회에 출품한 어린이들과 지도선생님께 감사 드리며, 더 큰 미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대한다.

제2회 효녀 심청 유치부 사생대회 입상자 명단

상명	성명	출신 학교	비고
대상	박수정	세잔 미술학원	
금상	이경빈	신구 어린이집	5명
*	오진환	곡성중앙초교 병설유치원	
*	여수진	곡성서초교 병설유치원	
*	정채영	예산 어린이집	
*	정기영	오곡초교 병설유치원	
은상	김신형	신구 어린이집	10명
*	차다연	오곡초교 병설유치원	
*	배은진	세잔 미술학원	
*	김선중	임마누엘 유치원	
*	김민희	곡성서초교 병설유치원	
*	오연호	곡성중앙초교 병설유치원	
*	최현선	곡성중앙초교 병설유치원	
*	정다소미	예산 어린이집	
*	박상윤	입면초교 병설유치원	
*	주수빈	곡성중앙초교 병설유치원	
동상	김기수	곡성중앙초교 병설유치원	15명
*	진상훈	곡성서초교 병설유치원	
*	김민호	세잔 미술학원	
*	이윤희	세잔 미술학원	
*	김한솔	곡성서초교 병설유치원	
*	홍우찬	오곡초교 병설유치원	
*	한서연	오곡초 입학분교 병설유치원	
*	윤우림	임마누엘 유치원	
*	홍영서	예산 어린이집	
*	이은진	세잔 미술학원	
*	김진선	곡성중앙초교 병설유치원	
*	이희진	곡성중앙초교 병설유치원	
*	유민환	신구 어린이집	
*	정태영	고달초교 병설유치원	
*	문미정	입면초교 병설유치원	
장려상	김태양	곡성중앙초교 병설유치원	20명
*	김누리	곡성중앙초교 병설유치원	
*	김찬미	곡성중앙초교 병설유치원	
*	신소희	곡성서초교 병설유치원	
*	송다영	곡성서초교 병설유치원	
*	김종범	곡성서초교 병설유치원	
*	강건호	세잔 미술학원	
*	문정민	세잔 미술학원	
*	김효진	오곡초 입학분교 병설유치원	
*	조은성	오곡초교 병설유치원	

*	장진태	예산 어린이집	
*	김채린	예산 어린이집	
*	김지성	임마누엘 유치원	
*	김미숙	임마누엘 유치원	
*	주민희	입면초교 병설유치원	
*	정세용	입면초교 병설유치원	
*	진황기	고달초교 병설유치원	
*	임정은	고달초교 병설유치원	
*	임동민	고달초교 병설유치원	
*	박유진	고달초교 병설유치원	

쉬어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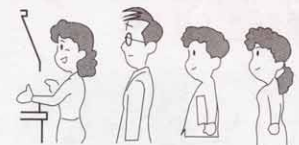
줄서기 풍경

여러분은 은행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번호표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구가 여러 곳에 많지만 눈치볼 것 없이 은행에 온 차려대로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줄서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이나 공중전화는 칸마다 줄을 서게 되어 있어, 옆 사람이나 나보다 늦게 왔어도 운이 좋으면 그 사람이 먼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화장실문이나 공중전화부스 앞에 너무 가까이 붙어서서 기다리기 때문에, 안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서로 지혜를 발휘하고 양보하여 줄서기를 효과적으로 합시다.



현금 인출기



앞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서 있어야 하는 곳: 공중전화기, 은행, 현금인출기, 화장실 등

(생활수기 / 곡성실고 원예과 1년 오준정)

## 밝은 내일을 위하여



이카시아 향기 그윽한 5월을 맞아 그리운 엄마, 아빠의 얼굴이 너무나 보고싶어 글로나마 나와 내 가족 이야기를 하려 한다. 또한 나와 처지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년 소녀 가장에게 용기, 희망, 꿈,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이 글을 통하여 말해 주고 싶다.

나는 '사동리'라는 시골 마을에서 눈이 불편한 할머니와 어린 두 동생들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오고 있다. 5년 전,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께서는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후 엄마는 아빠 잃은 슬픔이 가시기 전에 어린 3남매를 할머니께 맡기시고 어디론가 떠나 버리셨다. 나는 우리집의 가장으로 아빠, 엄마 뉘까지 할머니와 동생들에게 해야 한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빠는 술을 좋아하셔서 매일같이 술을 드셨고 그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간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셨다. 그래서 나와 할머니, 동생들만 남게 된 것이다. 엄마께서 안 계시자 '소년가장'이라는 커다란 짐이 내 어깨를 억눌렀다. 웃는 날보다 담담하고 서러워서 우는 날이 더 많았다.

우리 집은 쓰러질 듯한 시골 오두막집이다. 여름이면 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볼 수가 있다. 그 별들을 보고 있으면 별들이 모두 아빠와 엄마별 같이 생각되기도 한다. 엄마만이라도 우리 곁에 있다면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소망도 가져본다. 그러나 그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이제는 울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기로 맹세하고 또 맹세하며, 90이 넘으신 할머니를 위로하며 살아오고 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생계비가 나오면 우리 삼 남매의 대학 학자금으로 절반을 적금하고, 동생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쓰려고 우리 세 사람 이름으로 5천원씩을 따로 저금한다.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금을 하려고 한다.

장날이 되면 가끔씩 동생 손을 잡고 시장에 나가서 콩나물, 두부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사다가 잘은 못하지만 이것저것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한다. 그래서 동생은 장날을 가장 좋아한다. 그와 반대로 둘째는 3년 전 편

도선 수술 이후 잘 먹지도 웃지도 않는다. 너무 안쓰러워서 마을에 사는 어린 동생들을 불러 놀게 해보지만 잘 어울리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다. 아마 사춘기인 데다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둘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공부든 생활이든 모든 일에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내 꿈은 작고 소박하다. 야간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여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이를 보살피는 유아원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돌보아 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며 대학공부까지 시키고 싶다.

요즘 들어서 우리 집에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할머니 연세가 90이 넘어, 갈수록 기력이 약해지신다 하면 눈 때문에 더욱 활동하기가 불편하셔서 학교에 가도 할머니 걱정뿐이다. 할머니의 유일한 소망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서 우리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밥이라도 해주는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신다. 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 아파 눈물이 난다. 저녁때가 되면 우리 가족은 오손도 손 모여 앉아 할머니 팔 다리를 주물러드리며 재미난 이야기도 해 드린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삶은 할머니와 동생들이다. 동생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꾸중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부모 없이 자라서 그렇다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고 나도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동생들에게도 끝없이 잔소리를 늘어놓게 된다. 나의 잔소리가 부모 대신 동생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걸 동생들도 알 때가 올 거라고 믿는다.

기차가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빠져 나와야만 밝은 빛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 한다. 항상 웃고 꼭 참으며 누군가에게 행복과 기쁨을 준다면 인연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소박한 소망들도 들어주실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 '곡성실고소식 12호 마음의 트랙을 거닐며'에서 발췌

### 다음호 특집 기사 안내

## 일본 역사 교과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나?



'신라·백제가 일본에 조공' '한국강제병합' '군대위안부' 등 왜곡·은폐를 일삼은 일본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전국문화원연합회 발간지인 월간 우리문화에 게재된 내용을 기초로하여 3회에 거쳐 연재 해 드리겠습니다.

## 곡성문화원 - 내고장 인물 및 유적지 안내도 설치

곡성문화원은 2000년 한국독립운동 사적지 5곳 설치에 이어 지난 11월 11일 곡성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및 문화유적지 3곳에 새로운 문화안내도를 제작 설치 하였다.

곡성지역의 독립운동 사적지 및 문화유적지 안내 시설물들을 관광 및 지역문화재 알리는 차원으로 전문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자문을 구해 지역 특성과 문화적 정서에 맞는 현대적 감각의 안내도라는 디자인 컨셉으로 통일되게 제작하였다.

### ▶ 내고향 인물 및 유적지 안내도 설치 장소

1. 곡성을 청계동 입구
2. 곡성을 천주교
3. 곡성문화원 정문
4. 곡성을 윤정구 의사 묘역
5. 죽곡면 남양리
6. 오곡면 오광사 입구
7. 오곡면 완계정사 입구
8. 입면 초교 버스정류장



▲ 죽곡면 남양리 항일독립지사 신정백 의사 안내도